

2023년 도
국정 감사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 시 2023년11월2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개선과 관련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 25일 자로 이동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을 하시고 새롭게 허숙정 위원님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허숙정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허숙정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숙정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위원입니다.

여성은 집에서 밥만 짓고 아기만 보라 강요되던 옛 사회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살아갈 이상적인 사회를 구상하고 발언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기회와 권리가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회, 희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 · 동료 위원님들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남녀 모두 행복한 사회, 소외 없이 아동 · 청소년 ·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가

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정책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및 소속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함으로써 오늘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시즌에 우리 위원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말도 없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저와 야당 위원들이 장관을 찾으러 다니는 일도 있었고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한 대의

기관으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현안을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경청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상임위에 불출석하고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숙 장관님, 다시 국감을 같이 하게 됐네요.

옛그제 대통령과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장관 임명은 그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헌법과 법에 존재하는 부처의 폐지를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때까지 장관은 여가부가 왜 필요한지를 열심히 확인하면서 공무원을 다독여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성심껏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장관님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인의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여성가족부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표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나중에 해 주시지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선서, 본인은 국가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여성가족부

장	관	김현숙
차	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청소년정책실장		박난숙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대변인		조민경
정책기획관		김가로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가족정책관		김숙자
운영지원과장		양철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손연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윤효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전주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위원장 권인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업무보고까지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에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하여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언어발달, 생활지도, 기초학습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를 신규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이버 도박, 마약류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청소년 치유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

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해 나가고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잇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제도 등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포럼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력단절여성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발표하고 ESG 경영, 성별 근로공시제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가족, 위기가족, 5대 폭력 피해자 등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부처로서 가족과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순 차관입니다.

황윤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최성지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조민경 대변인입니다.

김가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권영 청소년정책관입니다.

김숙자 가족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업무에 관한 상세한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는 짧게 인사말씀만 하시고 상세한 업무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짧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평원이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양평원의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공직사회의 성인지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정책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통합형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체계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업무 역량 제고를 도

모하는 등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사이버 교육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이용자 친화형 플랫폼 운영 고도화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성별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국내외 양성평등 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 등 양성평등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고견들을 잘 새겨들겠습니다. 아울러 양평원의 제반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 수감을 앞두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다양해진 청소년 수요를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원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 등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효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약 630여 개 기관을 총괄 지원하며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청소년 상담복지 핵심인력 전문역량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제언은 사업 추진 전반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전주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본 원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가족정책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가족서비스를 총괄 관

리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원은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발굴해 왔으며 전국 244개소의 가족센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중심 가족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재난 등의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가족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가족안전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족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가족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인지 소송, 압류, 추심 등의 법률구조사업,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면접교섭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5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누적 양육비 이행 금액 169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65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했고 7만 2000여 명의 근로자에게 가족친화 직장 교육을 실시했으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공공과 민간의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중앙 관리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입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추진했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첫째, 여성폭력 방지 및 현장 지원사업, 시설 종사자 교육사업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각지대의 신종 여성폭력 피해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5대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피해 신고부터 일상 회복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 연계, 삭제 지원 전문성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사업을 촘촘히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본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핵심기능 수행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5대 폭력 및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중앙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 이행에 발맞춰 노력하며 국민과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언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지요?

이쪽 당은 없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신현영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정경희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용혜인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양이원영 위원님 하는 순서로, 일단 그 네 명만 받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현영 간사님.

○**신현영 위원** 여가위 간사 신현영입니다.

김현숙 장관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한 느낌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목적으로 취임한 김현숙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여성·청소년정책의 실종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8월 개최된 세계잼버리 행사에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그리고 조직위원장, 총책임자로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장관의 일말의 책임 있는 자세라도 기대했건만 8월 25일 예정이었던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때는 국회 어딘가에 숨어서 기자들한테 ‘나 국회에 있다’라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쇼, 대변인의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가부 망신입니다. 그 이후에 9월, 소리 소문 없이 장관은 무책임하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했고 다시 한번 김행랑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가부 결산 패싱되었고 여성·가족·청소년 주요 법안들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여가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아서 문 닫게 하려는 계획된 판입니다.

무능한 장관의 취임부터 잼버리 파행, 김현숙·김행으로 이어지는 도망 사태, 결산과 법안의 패

싱, 여성·청소년정책의 실종 스토리 퍼즐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망치기 전략은 꽤 성공적입니다.

김현숙 장관,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의 대한민국 수장으로 부여된 자리를 이렇게 엑시트 플랜으로,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잼버리 파행을 비롯한 본인의 무능과 업무 방기, 노쇼와 도망 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가부를 성실하게 재건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루 뽕빵용 자리 채우기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런 사과와 의지 없이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으로서, 여가부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위원장님은 장관께 사과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 어떤 의지로 나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경희 간사님.

○정경희 위원 제가 원래 진행하려던 의사진행 발언과 달리 지금 신현영 간사께서 무차별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민주당식의 해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 열릴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 시작 전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을 찾아내겠다면서 권인숙 위원장을 위시해서 신현영 간사, 양이원영 위원이 국회 본청 화장실까지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가 끌어내면서 여가부장관 데려오라고 욕박지르는 등 못 볼 광경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때 여성의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인 여가위에서 국회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폭력을 행사한 것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그날 장관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그날 출석요구서를 제대로 의결하기는 했습니까? 방망이조차 두드리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출석요구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 청문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 청문회 때는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듣도 보도 못한 폭거를 저질렀고요. 그

래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행 후보자와 같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과는커녕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차수 변경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국회 의사과에서 지난 의정 70년사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불법적인 차수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려면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후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서 단독으로 청문회 차수 변경을 했어요. 이런 불법적인 차수 변경은 국회 의사과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인 것이고요. 원래 공식적인 청문회 날짜가 10월 5일이었기 때문에 10월 5일 24시에 청문회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회의장을 떠난 것이지 그것이 엑시트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국회 운영을 해 놓고 나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여가위가 계속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제가 오늘 신사협정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건의드릴 테니까 부디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위 차원에서, 지난주에 국회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대방을 향한 고성이나 야유를 금지하는 등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 차원에서도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지금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를 가장한 질의는 원천 봉쇄한다.

둘째, 의사진행발언은 여야가 각각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셋째, 자료 요구는 개의 후 위원들의 질의 시작 이전으로 한정한다.

넷째, 위원의 질의 시에는 경청하며 끼어들지 않는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모든 여성가족위원들이 이 기본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사진행발언 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일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여가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정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간사님 말씀하신 신사협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가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매듭을 지어야 논의도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숙 장관, 김행 전 장관후보자의 연이은 국회 회의장 불참과 무단이탈로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중 삼중의 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이른바 잼버리 사태의 현안질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의회했던 회의시간이 됐음에도 출석해야 할 여가부장관 이하 출석대상자 모두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땠습니까? 김행 전 장관후보자 10월 5일 밤 청문회 도중에 출행량친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역대 정부는 극한의 대결 속에서도 국회의 질문을 국민의 질문이라고 여기고 최소한의 격식과 관례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그리고 김행 전 장관후보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이를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장의 질문과 제지에 따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 역사상 어디에도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내버려둔다면 행정권력이 국회와 헌법 질서

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민경 대변인과 황윤정 기조실장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치하겠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회의 참석해서 국회의 질문에 소상히 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김현숙 장관도 사표까지 낸 마당에 4개월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을 했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입장은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양의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양의원영 위원 양의원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파행시킨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저는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표까지 썼기 때문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부처의 수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김현숙 장관은 그것만이 아니라 줄곧 그래 왔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장관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그날은 김현숙 장관의 마지막 남은 잼버리 현장방문 보고회였는데요 거기는 참가하지 않고 취임 1주년 참배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이었을 평일 오후에 국정농단 안중범이 개최한 행사에 사회를 보러 가지를 았나.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여성가족부가 대신 배포를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 배포 즉시 보도(한부모가족 정책 간담회)’ 그 첨부자료를 열어 보니까 김미애 의원님 보도자료를 여가부가 배포를 합니다. 어

떻게 정치적 중립을 대놓고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가부가 올해 4월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마치 대통령 제2부속실이 여가부에서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한다는 첫 기본계획이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에 후속조치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이쪽 분야 정책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것도 아닌데 한부모가족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한 그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보도자료를 여가부가 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관이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챔버리 사태까지 벌어진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를 필요로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여가부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동안에 부산의 돌려차기,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요. 서울 신림동 등산로 그 사건, 인천의 스토킹 사건…… 흉악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빈발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도 않고 저희가 현안질의하자고 얘기를 해도 장관이 도망가니, 연락도 안 되고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여가부장관은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증정품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서 께차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과 그다음에 정책대상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장관이 필요하고, 저는 자격이 없는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황윤정 기조실장, 김행 장관후보자 정회 이후에 다시 개회를 했는데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위원장실의 연락에 대해서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받은 다음에는 후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조민경 대변인, 장관을 찾아서 연락을 하라고 말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보인 이 두 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석 요구서와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실의 실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진행된 회의마다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난번 회의는 국회법 관련 절차상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작은 구실을 찾는 일을 반복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다 나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장관님. 25일 날 출석 안 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사표 내셨던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야당 위원들이, 한 부분에서는 사과 요구가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퇴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현숙 장관님의 반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위원장님, 얘기 좀 할게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얘기 좀 하게 해 주세요.

○한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이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신현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이니까 답변 듣고.

○위원장 권인숙 일단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확인했고요.

○조은희 위원 아니, 장관 발언하기 전에요.

○위원장 권인숙 이것 듣고 나서 또 들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장관 발언하시기 전에 우리 것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어 주세요.

○최승재 위원 여기가 무슨 개인 위원회예요?

○한준호 위원 위원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희 위원 아니, 저쪽에서 지금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저 하나밖에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

○신현영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우선은 장관님한테 질문했잖아요. 답변 듣고 그다음에 합시다.

○용혜인 위원 아니, 아까 다 확인한 거잖아요,

4명이 하기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조은희 위원 합의 안 했습니다.

○최승재 위원 발언이 나오니까 얘기하지요!

○한준호 위원 뭘 발언이 나와서 그런다고!

○위원장 권인숙 장관님, 먼저 발언해 주시지요.

○신현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존중 좀 해주세요.

○정경희 위원 아니, 왜 위원장 말씀만 존중을 합니까?

○신현영 위원 질문했으니까 답변 듣고 그다음 해야지요.

○정경희 위원 양쪽이 의사진행발언을 동수로 해야지요.

○문정복 위원 여기가 많잖아요.

○옹혜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끼어들었잖아요.

○신현영 위원 신사협정 하자면서요? 신사협정 하자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양면성이지요.

○한준호 위원 위원들이 요청한 것을 위원장이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들이 신사협정 맺자고 해 놓고 이래.

○정경희 위원 이쪽에서 두 분이 의사진행발언 했으면 우리 쪽에서 두 사람이 의사진행발언해야지요. 제가 요구한 게 그것 아닙니까?

○신현영 위원 간사님 성격 또 나오시네.

○정경희 위원 그게 성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야 동수로 발언하자는 건데요.

○위원장 권인숙 장관님,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추후 진행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받아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권인숙 장관이 발언하시고요. 아까 제가 확인했잖아요.

○정경희 위원 거기 성격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거기 성격이라는 말이 왜 나오니까?

○위원장 권인숙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에 대해 제가 수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듣고 나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발언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한 번 더 주세요. 장관님 하시는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예요. 받아 주세요. 제발 받아 주세요.

○정경희 위원 아니, 대변인 실종됐다는 얘기를 다른 위원은 몰라도 신현영 위원이 할 자격 있어

요? 닥터카 문제로 실종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신현영 위원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정경희 위원 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 불려 가지고 몇 주 동안 질질 끌다가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실종돼서, 잠수 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가부 대변인보고 어디서 잠수 탔다는 등 장관 보고 잠수 탔다는 등 사라졌다는 등 그 말 할 자격이 되냐고요?

○신현영 위원 저한테 감정 있으세요?

○한준호 위원 적당히 좀 하세요!

○최승재 위원 한준호 위원, 소리 지르지 마요. 한준호 위원,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한준호 위원 소리를 누가 먼저 질렀는데요?

○옹혜인 위원 소리는 아까 최승재 위원이 먼저 지르셨고요.

○정경희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성질 나온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신현영 위원 신사협정 하자 그랬잖아요.

○정경희 위원 아니, 어디서 갑자기……

○신현영 위원 신사협정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서 화내시니까 왜 그러시냐고요? 양면성이 있잖아.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무슨 간사님 성질 나온다는 말이 왜 나오니까?

○한준호 위원 아니, 좀 말리든지 하세요. 이르고는 무슨 신사협정을 맺자고 그래?

○신현영 위원 먼저 신사협정 하자고 제안한 게 국힘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옹혜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장관에게. 중간에 끼어들어 놓고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권인숙 신현영 위원님!

정경희 간사님!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간사님 성질 나온다는 말을 먼저 했잖아요. 속기록 돌려 보세요.

○신현영 위원 자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두 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조은희 위원님,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이것 끝나고 나서 드릴게요.

○조은희 위원 지금 주세요.

○정경희 위원 어디서 함부로 상대방 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세요? 성질 나온다는 말 사과하세요, 빨리!

○한준호 위원 그만 좀 하세요.

○위원장 권인숙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제가 장관님 발언 듣고 나서 발언시간 드릴게요.

○정경희 위원 성질 나온다는 말 빨리 사과하세요.

○이원택 위원 회의 진행을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신현영 위원 끝대 발언 그만하시지요, 감사님.

○정경희 위원 그게 무슨 끝대 발언이에요?

○신현영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가만히 계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장관님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 발언과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님, 장관 발언과 관련된 겁니다.

○정경희 위원 지금 연속해서 두 번이나 상대방위원을 모독한 겁니다. 성질 나온다, 끝대 발언이다, 이 2개의 발언 다 사과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감사님!

정경희 감사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한준호 위원 정경희 간사, 그만 좀 하세요.

○이원택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세요.

○위원장 권인숙 일단 먼저 장관님 발언 듣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장관 발언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제가 그것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수를 체크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 이것 듣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중간에 정리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권인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탁드렸잖아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이니까 제발 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일단은 그건 듣고 나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장관님 발언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8월 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참고인이 합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우리 대변인께서 5층에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권인숙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더욱더 국회의 어떤 논의 과정과 그런 부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챔버리에 관련해서는 저도 8월 25일 날 나와서 분명히 국회에서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제가 참여하면서 예결위장에서 언론과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사의는 수리되지 않았고 저는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책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요. 헌법 제62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합니다. 장관은 어떠한 정쟁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로 의결해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열기로 한, 그리고 보고까지 하셨잖아요. 회의에 출석,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었잖아요.

최근 국회에 장차관이 불출석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국회의 권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이 마치 정당한 일인 듯이 표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현숙 장관님이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의사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현숙 장관의 답변도 있었는데요. 저는 위원장님의 위원회 진행과 프레임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사과와 또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여야 합의로 김현숙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인숙 위원장님 스스로도 유감 표명을 하셨고 조금 전에는 행정실의 실수라고 아랫사람한테 실수를 돌리시던데요. 8월 25일 날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장관 출석요구서는 의결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지금 야당 간사나 야당 위원님들이 김현숙 장관이 출석의무를 저버렸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격 모독성의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 부분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민주당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이면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중립의무를 저버렸고 본인 입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뒤집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허위 공문서입니다. 허위 공문서 사건이 발생한 날에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 위원장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화장실까지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서,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끌어내고 하시는 장면을 전 국민이 다 봤습시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께서 그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라 그러시니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적반하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도망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는데 그것은 국회법에 정확히,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을

지금 다수당이라는 것과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악용해서 현직 장관과 또 장관후보자의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앞으로 회의의 중립성 또 그동안에 중립성을 해쳤던 부분과 허위 공문서 사건을 아래 행정실의 잘못으로 돌리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다짐과 사과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문정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건가요?

○문정복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여당이 자꾸 상임위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사표를 낸 장관이 국감장에 딱하니 앉아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저는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표 낸 장관은 퇴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폭염과 벌레로 고통받던 잼버리 현장에서 여가부를 포함한 조직위 관계자들이 대거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공짜로 묵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31개 생활관 중에서 25개를 조직위가 썼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누가누가 썼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략 25개 생활관을 12일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일간 묵은 사람들 명단을 달라, 봤더니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돼요. 그래서 실제로 정산이 안 됐다면 거기에 묵었던 여가부 관계자들은 전부 청탁금지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이전까지 거기에서 묵었던 여가부 직원들 전체, 대략 한 80명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명단을 주시고 정산했는지 여부 빨리 자료 제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권인숙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용혜인 위원 예.

○위원장 권인숙 용혜인 위원님.

○**옹혜인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회신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8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던 날 00시부터 산회 시점까지 국회에 출석한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여성가족부 직원의 김현숙 장관과의 통화내역 그리고 문자, SNS 메신저 내용 그리고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김행 후보자의 회의장 이탈 후 10월 6일 새벽 여가위 정회시간까지 인사청문회 준비팀 전원의 김행 장관후보자와의 통화내역, 문자, SNS 메신저 내용, 통화 음성파일 녹취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사항을 공문으로 별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정보위에 공문도 보내지 않았고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원래 8월 25일 회의는 여야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현숙 장관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혐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자꾸 합의를 이야기하시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혐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진행하시는 것은 김현숙 장관이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미 도망간 뒤의 상황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여러 물타기 발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권인숙**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체크를 해 봤을 때, 지난 잼버리 참가 현황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숙소 재배치 계획에 있었던 18개 국가 총 500여 명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 참가 현황에 빠져 있었던 걸 확인을 했고 이 내용들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8월 22일에 이 18개, 대원들의 실제 입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답을 피하다가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시리아

등 18개국이 입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짝박하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봤을 때 모든 예산과 관련된 승인 사항들은 여가부 소관인데 결과적으로 500명 숙소나 식사 제공 등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고스란히 낭비가 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관련된 행정 처리를 하고 예산 처리를 했을 텐데 그 예산 처리내역들을 편집하지 마시고 예산 처리 그 당시에 했던 그대로 점심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권인숙**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김현숙 장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여가부장관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자로 지명되면 뻔뻔하고 낮짝이 두꺼워야 가능하구나라는 정말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국감에 나와서 지난 1년간의……

○**정경희 위원** 도대체 왜 막말을 해요.

○**지성호 위원** 인격 모독하는 말 하지 마세요.

○**정경희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막말해.

○**지성호 위원** 낮짝이 뽀니까, 낮짝이.

○**정경희 위원** 조금 아까 간사인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조은희 위원** 끈대라 그랬습니다.

○**정경희 위원** 간사 끈대 발언을 했는데, 이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더니 아무한테나 국회에서 ‘낮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신현영 위원** 우선은 신사협정을 제안한 정경희 간사님이 제 발언에 먼저 끼어드시고 또 아까 3분으로 의사진행발언 제한하자 그러더니 먼저 초과하면서 깨시고, 그러니까 제안을 하지 마시든지, 지키지 못할 거면.

(장내 소란)

○**위원장 권인숙** 잠깐만요. 신현영 위원님,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발언하는 와중에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계속 원칙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지요.

○**정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낸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내용 다섯 가지 냈잖아요.

○**옹혜인 위원**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좀 지켜주세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위원장 권인숙** 일단 발언하는 와중에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결도 하지 않고…… 의결을 우선 하십시오, 제가 아까 제출한.

○**위원장 권인숙** 일단 신현영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신현영 위원** 시간을 다시 돌려 주십시오.

○**위원장 권인숙** 발언하는 도중에는 서로 개입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언어를 좀 순화하자고도 얘기해 주세요.

○**신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저도 여당 위원님들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국회의 품격을 낮추기 때문에 그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양경숙 위원** 누가 누구를 폄하합니까?

○**정경희 위원** 국회의 품격을 낮추잖아요.

○**위원장 권인숙** 정경희 간사님, 두 분 좀……

○**신현영 위원** 우선은 정부·여당에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여가위 상임위가 제대로 원활하게 가려면 협상도 잘돼야 되기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불리하다고 회의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챔버리 참사에 대해서 여가부가 가장 주 책임기관인데 당연히 긴급현안질의해야지요. 그런데 불리할 것 같으니까 여당에서 참석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무위원이 그것을 빌미로 참석을 안 합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된다면 우리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님 답변은 앞으로도 국힘이 협상에 참여 안 하면 나는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뭔가 공언을 한 것 같아서, 선언을 한 것 같아서 여가부, 정말 여가위 갑갑하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절박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8월 25일 날 화장실 추격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게 국무위원이 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상임위를 존중하시고 국회를 존중하셔서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사과할 것 하시고 해명할 것 하시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여가위 존중해 주시는 여가부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대충 하고 질의 좀 들어가지요.

○**양경숙 위원** 그만합시다.

○**정경희 위원** 왜냐하면 신현영 민주당 간사께서 사실을 왜곡하셨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8월 25일에 챔버리에 관한 여가위 상임위가 열린 이유를 우리가 불리하니까 피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됐어요?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참고인을 부르기로 해서 참고인 명단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주고받던 참고인에 전혀 없던 참고인을 막판에 가서, 대통령경호처장이 챔버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호처 사람들을 대거 부르는 명단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신현영 위원** 경호처장 1명 불렀고요. 뺄 수 있다고 했는데 협상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권인숙** 서로 개입하는 것은 하지 마시지요.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경호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신현영 위원** 팩트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발언하실 때.

○**정경희 위원** 그래서 막판에 참고인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열지를 못 한 것이지요.

○**신현영 위원** 불리하니까 협의를 안 한 거잖아요.

○**정경희 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개최를 해서 장관을 오라 가라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장관 요구서도 제대로 의결이 되지 않아서, 장관 출석요구서가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허위 공문서가 발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현영 위원**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출석을 안 하시니까.

○**정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의 일인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하고……

○**신현영 위원** 처음에 안 나타나셔서……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안 나타났다는 게, 의결도 되지 않은 요구서를 보낸 건 그 이후고 합

의되지 않은 상임위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신현영 위원** 그러니까 불리하면 여당이 안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예요.

○**정경희 위원** 들어 보세요.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먼저 끼어드시잖아요.

○**신현영 위원** 먼저 제안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래서 권인숙 위원장하고 신현영 간사하고, 그다음에 양의원영 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가부 대변인 쫓아가서 국회 본관 2층, 3층 휘젓고 다니면서 여가부 대변인한테 장관 찾아내라고 하면서 화장실까지 들어가 가지고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폭력행위예요.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 폭력입니다.

○**신현영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경희 위원** 부끄러운 줄 알기는요.

○**신현영 위원**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여가위의.

○**정경희 위원** 신현영 위원은 그러면 왜 여가부 대변인한테 사과하는 문자 보냈습니까? 본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대 놓고서는 갑자기 거꾸로 대변인한테 사과를 하라는 등, 이런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키고 거짓을 사실인 양 말하는……

○**신현영 위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정경희 위원** 오늘 말한 거짓이 열 가지도 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거짓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짓이라는 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대변인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그렇게 폭력을 저지른 데 대해서 문자로만 사과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국회 폭력을 저지른 데 대해서.

○**신현영 위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님.

○**정경희 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긴요?

그리고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렇게 의결되지도 않은 허위 출석요구서, 허위 공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전부 그런 적이 없다고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신현영 위원** 장관이 제대로 출석하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에요.

○**정경희 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

결이 되지 않았어요.

○**신현영 위원** 장관이 제대로 출석하면 돼요.

○**위원장 권인숙** 일단 발언하는 중간에는 서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안 그러면 너무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어서요.

○**한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인숙**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여가위 진짜 잘 열리지도 않는데 국정감사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양당 간사님들도 그렇고 두 분이 말싸움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될 때는 그냥 두 분이 나가서 조율을 하시고 오시고 정경희 간사께서 오늘 신사협정 맺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끼드는 것은 내가 상대방 질의나 상대방의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국토위도 그렇습니다—일단은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상발언이 필요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서 반박을 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초등학교 반장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건대 질의를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저희 각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관련해 가지고 뭔가 신상발언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고 받아서 신상발언 형태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질의들이 있으니까 질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양의원영 위원** 제 이름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위원장 권인숙** 여기서 정리를 하지요. 이것 정리를 하고요.

일단 자료제출 요구가 세 분한테 있었는데 자료제출 요구 점심 때까지 가능하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합의에 따라 질의 및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와 2차 질의는 모두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장관님, 청소년정책 예산 2024년도 예산에 삭감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삭감내역을 보니까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지자체청소년안전망팀운영,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청소년근로자권익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할 때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검토해야 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기본인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분야별 발전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디지털 등 환경 변화와 청소년 수요에 맞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보이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가부 입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활동지원 및 국제사업 종료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 청소년활동 운영지원단 이런 예산들은 지금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나오고 이제 추진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가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싶고요. 대책이나 있는 건지 아니면, 특히나 잼버리가 끝나서 그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오래 지속되어 온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기가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글로벌 청소년 서밋 같은 경우도 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여야 되고 그런 게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건 분명히 맞지만 청소년 활동을 더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을, 활동진흥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요. 학교 안팎 연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이미 저희가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학교랑도 연계를 좀 많이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민간과 공공에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자체에 가 보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수련관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회의는 여전히 잘 운영을 하되 운영 방식을 바꿀 예정이고 지자체의 청소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랑 이미 다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교육부나 경찰청이 주로 하고 청소년근로보호사업은 고용부 사업으로 일원화하되 각각 부처와 연계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1388이라는 전화와 청소년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절대 청소년 보호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에 대해서 어떤 공백이 생기거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말씀 들으니까 다른 데 지자체라든지 학교하고 연계사업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대시켜야 되고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여가부의 예산으로만 될 일이 아니고요.

다만 예산이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계사업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실 추진하고 끌어 갈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소하는 부분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부분하고는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다음에 여가부의 어떤 수행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화시키시되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회복시키든가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의사와 그다음에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가부에서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백 없이 할 거고, 아까 국제교류사업 얘기를 해 주셨어요. MOU를 39개국하고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복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년엔 저희가 청소년박람회를 진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확정됐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국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행랑을 친 후임 장관후보 때문에 잼버리대회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회의장 출석도 안 하고 아예 가 버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군요.

돌아온 소감도 궁금합니다만 이제라도 잼버리대회 실패 책임에 대해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까 위원장님이 말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숙 위원** 사과 정식으로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양경숙 위원**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국민들이 잼버리대회를 지켜보면서 각종 국제행사와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 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한숨이 절로 나고 부끄러워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는 것 알기는 합니까?

잼버리대회 파행은 안전에 대한 윤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진상 규명 없는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 낸 국가 망신이고 역대급 국격 추락입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폐죽음을 당한 국가적 참사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주무부처 장관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보다 오로지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송 지하철도에서 버스 승객 수십 명이 죽고 해병대 채 상병이 잘못된 상관의 명령으로 사망하고 170개국 4만 3000명이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 축제 잼버리대회가 쫓딱 망해도 여전히 윤석

열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 안 지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숙 장관의 태도도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하지 않지요?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국회를 늘 존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 태도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점점 지지를 잃어 가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 세계연맹이 대회 첫날 잼버리 참가자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는 화장실 위생 불만족 76%, 음식 부족 59%, 대회 전체 불만족이 66%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양경숙 위원** 자료를 통해서 확보한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생존 게임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국제적 망신과 세계적인 수치를 당하고도 주무부처 김현숙 장관은 ‘한국이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 줬다’고 자화자찬하는 후안무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잼버리대회 특별법상 예산회계 총책임자는 여가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승인·변경권도 모두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런데 잼버리 예산편성과 집행만 봐도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박근혜정부인 2016년 잼버리대회 계획 당시 예산은 49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무려 2배가 넘는 예산 117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가부는 이 중에서 74%인 870억을 여가부장관이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전북과 부안군에 25.7%를 배정했습니다.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여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가부가 올해 5월 폭염 대비 등으로 93억 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거절하기도 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저희는 필요한 예산 40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양경숙 위원**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잼버리대회 사고가 터진 후에 212억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요청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집행한 것이지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정작 제대로 편성도 안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 120억을 배정했는데 화장실 청소 등 민간 용역비는 4억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도 안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청소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편성과 집행이 망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설명해 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양경숙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잼버리조직위원회 외부업체 계약도 줄속 그 자체인데요. 전체 계약 건수 281건 중에 43.8%인 126건이 행사 직전과 행사 도중에 체결되었습니다. 잼버리대회 진행 중에 체결된 긴급 수의계약만 해도 13건입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개영식 당일까지 체결한 수의계약이 113건이나 됩니다. 잼버리 철수도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땀질식 대응으로 군사 독재정권의 작전 명령하듯 강압적 동원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등을 동원해 국민 혈세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백억 혈세를 쓰고도 반장인 국무총리도 간사인 행안부장관도 주무부처 장관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가부도, 그 어디에서도 소요된 총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하라는데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장관, 총체적 책임으로 잼버리를 파행시키고 수습까지도 뒷전인데 양심과 염치라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신속 대응 운운, 자화자찬해서야 되겠어요?

○**위원장 권인숙** 정리해 주시지요.

○**양경숙 위원** 국가 망신, 국정 대혼란, 혈세 낭비, 인력 낭비, 직무유기, 업무 소홀 등으로 탄핵을 해도 부족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자체 감사하실 의향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감사원 감사 이전에 자체 감사할 의향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태도라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양경숙 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권인숙** 짧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회 초기에 세계연맹 등에서 폭염이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나무 식재도 어렵고 폭염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부처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자체, 민간기업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월 7일 그와 같은 브리핑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운영이 사실은 거의 정상화됐었습니다, 8월 7일쯤에. 그런데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태풍 카눈 예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상대피를 하게 됐고, 태풍의 경로 때문에 8개 시도로 저희가 대원들을 대피시켰고요. 현장에서, 지자체에 가서는 지역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잼버리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공문을 내려서 활동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다섯 군데 가서 체크를 했었고……

○**위원장 권인숙**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마지막에는 폐영식과 케이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가 대원들이 저에게도 보내고 총리님께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보냈고요. 해외 참가국 대사들의 감사 서신이나 외신에서의 감사와 호의적인 보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초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참 다사다난했던 임기 1년 6개월이었는데요. 김현숙 장관께서는 여성가족부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잘 운영해 왔다, 이끌어 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챔버리 운영 초기에 애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를 하다가 장관께서 직접 한 약속도 말도 지키지 못하고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권익증진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현숙 장관이 폐허로 만든 내년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의료비, 피해 회복 프로그램 같은 구조 지원 예산에서부터 피해자들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 예산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예산까지 모조리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도 저만치 많아요. 저는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이것 다 안 하면 뭘 하는 부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5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여성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다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예산을 제출하셨고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성매매, 인신매매 예산 다 삭감된 것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

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중에 유일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청소년정책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해 1호 약속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보호입니다.

○용혜인 위원 ‘고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돌보겠다’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보호요, 청소년 보호.

○용혜인 위원 정확히 ‘고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본인의 1호 약속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정작 밤낮으로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청소년복지 상담사들, 보건복지부 상담사들보다 많게는 100만 원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담사들이 오히려 위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역시 제자리걸음입니다. 고위기 청소년들을 가장 일선에서 살리고 있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장관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말로만 말고 예산으로 보여 주는 게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정동행, 2호 약속이라고 지난 6월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청소년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활동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약속한 지 4개월도 안 되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약속과 행동이 너무 다르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청소년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활동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분명히 약속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고요.

챔버리대회 오늘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챔버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1171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3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잼버리대회가 전 국민 흑역사로 남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 잼버리를 이유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저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사실 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요.

장관께서 ‘부처가 이관되어도 사업 축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축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관해도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축소가 없다라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사업 축소는 할 수 있지만 기능의 축소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기능은 어떻게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편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부처가 이관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피해자 지원 축소되고 청소년정책 실종되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공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장관께서 9월 12일에 사표 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건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용혜인 위원 왜요? 그것 언론 통해 다 보도된 건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제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국회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잼버리대회 파행시킨 책임으로 사표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후임 장관이 지명될 예정이니 그냥 사표를 제출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잼버리 파행뿐만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부처의 장으로서 실패했다, 부족했다 인정하시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사퇴 의사 밝히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임명권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다시 한번, 본인의 사의를 표명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임명권자의 판단은 임명권자의 판단이고요, 본인의 판단을 여쭙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다시 책임에 대한,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이 사표까지 내셨으면서 어영부영 다시 돌아와서 여성가족부의 예산들, 사업들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냥 직을 유지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장관을 어떤 국민도 저는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이제는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답변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잠깐만 하시지요. 질의시간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서 사실 길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30초 정도 짧게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권익 관련된 예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사업도 확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서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양한 지역, 지자체와의 연계 그다음 학교 안팎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 MOU를 맺은 국제교류사업은 국회에서 다시 예산이 복원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책임을 다했고,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장관님,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고요. 성실한 자세 보여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국회의원들은 전체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좀 더 공손한 자세를 보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장관님,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냉방도 잘 안 되고 벌레도 많고 수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1년 전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왜 그렇게 냉방도 잘 안 되고 벌레도 많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원인은…… 1년 전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집수리 해 달라고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이런 여러 가지가 냉방이 될 수 없도록 몇 년 전에 지어졌다면 그것은 전 주인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장경태 위원 저는 현 집주인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계약 관계가 완료됐고요.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직 대통령과 정권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직 장관께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러면 1년 전 여가부장관한테 가서 왜 잼버리 준비 이렇게 했냐고 질문합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오히려 장관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잼버리 쉽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신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사과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무색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사과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잼버리 파행됐다고 지금 생각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저는 초기 운영

에 애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통령께서는 무난하게 마무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건 대통령 생각이지요. 저희는 국민의 시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사과드린 부분은 초기 운영의 애로사항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조직위 사무국에서 업무의……

○장경태 위원 그 애로사항 때문에 영국 싱가포르 미국, 다른 각국에서 입영했던 청소년들이 중도 퇴영하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중도 퇴영한 국가도 있지만 남아 있었던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님.

○장경태 위원 저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감 능력 부족과 책임감이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영하기 불과 2주 전에 오송 참사 있었습니까. 잘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오송 참사 났을 때부터 이미 폭우와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문제들이 예견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에 길 가다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고 대명천지에 버스 타고 가다가 익사 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잼버리 하나 제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국익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판이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과도 지금…… 8월 8일 브리핑 내용 보시면 위생이 문제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진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었다…… 저는 이게 말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서 결국 8월 30일 예결위 회의 때는 부지 선정이 잘못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부지 선정이 잘못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원래 관광레저용지로 하기로 세계연맹과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 땅은 농생명용지였습니다.

○장경태 위원 장관님, 2015년 9월에 직책이 뒀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015년이요?

○장경태 위원 예.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장경태 위원 2015년 9월 22일에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 선정, 박근혜정부 때 전북 새만금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부지를 잘못 선정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 당시에 관광레저용지로 하기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대회가 열리기로 확정된 것은 지난 정부 때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정부 때였지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대회 확정인데, 전북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때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때도 관광레저용지로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시는 것이지요?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만약에 관광레저용지로 되어서 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 영구적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설치됐다면 저는 훨씬 더 용이하게……

○장경태 위원 화장실 설치하는 데 1년이면 되지, 시간이 1년이 더 필요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농생명용지여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위생과 샤워실, 화장실 모두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그 총체적 난국이 저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부지가 조성된 게 2022년 12월입니다, 위원님.

○장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계서는 정부지원위 부위원장이고 잼버리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맞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장경태 위원 저는 이것도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3월 1일 날 공동조직위원장에 행안부 문체부 등을 추가했잖아요, 두 분에서 세 분으로? 그런데 그 당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됐을 때 아닙니까? 2월 8일 날 탄핵했잖아요, 본회의에서. 그런데 3월 3일 날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잘 운영하라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추가하는 것?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건의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장관께서 그러면 탄핵된 장관을 잼버리 공동위원장 해 달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행안부의 여러 가지 리소스나……

○장경태 위원 행안부의 역할 필요하지요, 당연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런 것 때문입니다.

○장경태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지원위 부위원장, 잼버리 공동위원장 등에 왜 보건복지부는 없습니까? 장관께서 여가부 폐지하면 보건복지부 본부장, 그러니까 여가부가 보건복지부 본부로 갈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도 여기 유관기관이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필요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현재 폐지되지 않았잖아요. 야당의 반대로 지금 폐지되지 않고 있지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폐지될 수가 없지요, 저희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이시고 여가부라는 주무부처가 있고 또 국무위원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이만큼 파행시키는데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가정을 전제로 어느 정도 더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 숙소에 7월 31일~8월 12일, 13일간 계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장경태 위원 외부 숙소에, 생태탐방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장경태 위원 8월 1일부터 계셨습니까? 3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신변 위협을 받아서 거기 있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4일부터 신변 위협이 있기는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4일부터잖아요. 왜 1일부터 계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처음에 제가……

○장경태 위원 신변 위협도 없는데 그냥 생태탐방원에 계셨던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예약된 데로 제가 갔을 뿐입니다.

○장경태 위원 총리께서 3일 날 현장을 잘 지켜보라고 지시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제가 현장에 있었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도 부안군입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잼버리를 여가부장관께서 제대로 신경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권인숙 정리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넘으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보면서 8월 달에 전북에서 열린 잼버리대회가 처음에 미흡했고 결국에는 전북과 범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마감해야만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산과 컨트롤타워의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컨트롤타워까지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예산을 보면요. 순천만은 전체 예산 중에 국비는 7.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2%가 전부 순천시 자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코로나지원금도 주민들한테 주지 않고 박람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반면 잼버리대회는 보면, 실제로 2017년 전북도의회 자료를 보면 도의원들이 SOC를 빨리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고 말을 합니다. 잼버리를 하는 게 잼버리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사보다 젓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SOC 사업에 국비가 11조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정작 SOC의 최대, 3조

원이 넘는 국제공항은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리더십, 예를 들면 순천시장이라든 전북도지사의 리더십 차이가 대회의 성공…… 그러니까 정말 제사에 관심이 있느냐? 순천시장은 그랬지요, 국비를 7.5%밖에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전북은 이번 기회에 국비를 잔뜩 받아야 되겠다, 11조를 갖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지요.

제가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북 예산에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8월까지 전체 예산 계약 건이 272건인데 수의계약이 70%입니다. 그리고 그중 30%에 해당하는 79건이 대회 한 달 앞두고 급격하게 체결이 됐는데 그 급격하게 체결된 게 전부…… 전북도의 공무원들이 조직위에 거의 70% 파견이 돼서 계약담당의 핵심은 전북도 직원입니다. 도 관련 직원인데 그분들이 아주 담합적인 예산 집행을 합니다.

혹시 영상을 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의원실이 YTN에 제보한 내용인데요. 잼버리 백서는 다음 대회를 잘하기 위한 일종의 징비록인데 백서를 전북도청 지하에 있는 문구점에서 한 달 전에 수의계약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물으니까 전북도 직원들이 와서 ‘제발 좀 사정 봐 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징비록을 전북도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잼버리대회를 보면 상징물이 굉장히 각 세계로 보면 중요한데 상징물 제작도 속눈썹시술업체에 맡깁니다. 그것도 전북도 출신 공무원이 가서 부탁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굉장히 그 내용상에 담합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짬짜미 예산이 결국은 순천시와…… 대회 성공 여부에 굉장히 많이 좌우됐다고 보고, 제가 전북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여쭙보니까 ‘그건 전북도 공무원이 했어도 우리가 아니고 조직위에서 했다’ 책임을 떠넘기고 또 ‘여성기업을 우대하느라고 그랬다’ 하고 좀 황당한 답변을 하시던데 장관께서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북도지사는 ‘비록 도 공무원들이 가서 계약을

해도 조직위 소속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집행위원장이지만 아무 권한이 없었다', 제가 그걸 '그러면 김윤덕 조직위원장이 7년 동안 불박이었는데 거기 책임을 물어볼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 까 '사무총장이 다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장관님한테 돌리다가 제가 7년 불박이 김윤덕 조직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을까 물으니까 7년 불박이인 사무총장한테 물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사실은 국민께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여가부가 관리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부처로서 가졌던 여러 가지 기능에서 적절한 역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임까지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의계약의 문제는, 액수가 3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직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 미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본부장이 전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조직위 사무국에서 집행되는 게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계약에 짬짜미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버스의 답합은 지금 이미 밝혀져서 공정거래위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국민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 공무원 중에 75%가 조직위 사무국에, 전라북도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맡은 역할은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분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도지사님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직위 사무국에서 처음에 기안을 하면……

○위원장 권인숙 짧게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기안을 하면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산.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승인하는 구조기 때문에 누가 더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가리는 것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다 같이…… 잼버리 특별법 4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오늘 오전은 이원택 위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준호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날짜는 제가 아까……

○한준호 위원 9월 12일이예요. 날짜는 모르실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건 기사가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사의 표명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사의는 표명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대통령께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비서실장님께.

○한준호 위원 비서실장님께 했고, 답변은 들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특별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냥 사의를 표명하시고 나서는 그러면 업무를 계속하셨어요, 아니면 사의 표명한 이후에는 장관직을 이제 떠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서 떠나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사의 표명 이후에 별도의 대통령의 답변이 없었는데 김행 후보를 대통령께서 내실 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관님께 협의나 또는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들은 말씀은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다음 장관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사의 표명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판단하셨겠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개 우리 장관님 같은 분들, 임용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수리의무가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관후보를 냈다는 것을 장관께서도 사의가 수리됐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와 관련해서 철회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 넘겨 보시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돼서 대부분 사의를 표명하고 나면 민법을 준용해서 대개 1개월이 경과가 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즉 뭐냐 하면 10월 13일 자면 장관님께서도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장관의 낙마와 사의를 표명하신 장관님께서 이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장관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제기를 제가 처음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게 장관께서 사의 표명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는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잼버리대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 사안이든 책임 여부를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을 여러 군데 나눠서 숙소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재배치를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직위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입수해서 받아 보니까 당시에 18개 국가 총 500명 이 인원들이 빠져 있었어요. 즉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숙소를 배치했어요. 문제가 있겠지요? 인원 체크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위 사무국이……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조직위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위 사무국이, 처음에 참가비를 수납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참가비를 수납한 국가가 174개국 이 있는데……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고 행정상·

서류상 남아 있으니 이걸로 일단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실제로는 156개국이 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개국이 사실은 불참했는데 참가한 것처럼 됐고요.

○한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실제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알게 됐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8월 22일에 이것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여쭙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 달이 넘도록 답을 피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아마 자료가 어디에 숙소를 배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 아니, 바로 아셨다면서요? 저희가 물어본 건 딱 하나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500여 명이 불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으면 그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전혀 주지 않고 두 달을 버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바로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 달 동안 숨겼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숨긴 것 전혀 없고요. 어떤 나라들의……

○한준호 위원 두 달 동안 답을 안 했으니까 숨긴 게 되는 거예요. 숨겨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한준호 위원 내가 숨겼다고 그래서 숨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알았다고 했는데 왜 숙소를 배치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 배치하는 과정이 여성가족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한준호 위원 조직위 담당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위 사무국이 있었고.

○한준호 위원 여가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결제를 한다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위 사무국이 그 배치명단을 갖고 왔고 여가부가 같이 배치를 했고 실제로 각 지자체는 행안부가 관련해서 다

앨러케이션(allocation)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같이 한 일입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같이 했더라도 이 전체적인 총괄을 누가 합니까? 조직위원장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은 빨리했다, 그런데 숙소는 배치를 했다, 예산은 집행이 됐다,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전혀 맥락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저희가 성실히 빨리 답하는 것은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준호 위원** 두 달 동안 못 하신 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너무, 950건 이상 자료요청이 들어왔고 실제로 자료 자체를 여가부가 갖고 있지 않고 조직위 사무국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거나 거기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준호 위원** 양해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렸으니까 오전 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됐다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징계 절차나 또는 상황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 국민의힘 지성호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세간의 중심에 있었던 잼버리 행사가 끝나고 대회준비위와 운영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지성호 위원** 장관님, 잼버리대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잼버리대회는 세계 청소년들,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세계적인 규모의 야영대회입니다.

○**지성호 위원** 스카우트 정신을 함양하고 널리

알리는 행사인데 저는 야영대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행사인데 이번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이런 야외활동의 의미는 퇴색되고 폭염과 해충에 고생하는 대원들 모습만 부각되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기에 운영상 애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가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전체적인 총평은 아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상암월드컵에 전부 모였습니다. 미국·영국, 퇴영했던 국가들도 다 모여서 함께 잼버리 축제를 끝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뒀고 여러 가지 평가는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초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위원** 본 위원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차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으로 지친 대원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대원들은 즐겁고 보람 있게 야영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최자인 세계스카우트연맹도 새만금 잼버리기도전과 극복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했고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총리님과 김현숙 장관님께 감사하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과 태풍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니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인데 저는 언젠가는 새만금 잼버리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퇴영…… 서울로, 저희가 8개의 시도로 옮길 때까지 현장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급속히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제가 대표단장회의, 그러니까 전 세계 대표단장회의에 처음 참석한 게 8월 3일 아침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8

월 5일부터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8월 7일쯤 됐을 때는 태풍만 아니었다면 저는 거기가 굉장히 안정화돼서 잼버리가 잘 끝났을 것이고……

아마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굉장히 상심하셨을 겁니다. 준비를 굉장히 잘하시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랐셨을 텐데 새만금 잼버리로 끝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갖고 계신 상실감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성호 위원 향후 있을 국제행사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백서 발간과 사후 활동, 사후 활용계획 수립 등 조직위 청산 절차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지성호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점검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7월 25일 왜 장관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발표하셨는지입니다. 24일 현장점검도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사실 제가 7월 24일 날 현장에 가서 그 시설들, 상부시설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점검을 했고 그런데 그게 여의도 3배 면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3배 면적을 전부 다 다닌 건 아니고 몇 군데 스폿을 다니면서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시설본부장하고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도 열어서 진짜 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글로벌 리더센터 안에 셋업이 아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7월 24일 현장점검과 사무총장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저는 7월 25일 날 준비가 다 됐다라는 발표를 드렸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저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현장에 가 있을 수는 없고, 저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체크했을 때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가 일종의 상당한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호 위원 8월 1일 조직위의 폭염 대비가 철저히 준비되었다는 보도자료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성호 위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화장실 위생 문제도 다 준비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안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성호 위원 보고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사실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장관께서 허위보고나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입장은 무엇이고 허위보고가 있었다면 엄중 문책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조직위 사무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라고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게 설치가 돼야 이동형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도지사님은 4월 25일 날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에야 설치가 되고 7월에 통수시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막힘이나 고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현장 화장실에서. 그런데 그게 상하수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부시설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위원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잼버리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차·3차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잼버리대회로 인해서 국민적 상실감 또 전라북도 도민의 상실감은 아주 큼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회가 끝났고 또 진상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잼버리대회가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위가 구성돼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또 전라북도 기관별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나 정관상으로나 업무분장 된 건 많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제가 폭염대책이랄까 또는 화장실 위생대책이랄까 또는 음식·해충대책이 조직위 업무고 여가부 지도관할권에 있다는 말씀은 예결위 때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잼버리는 준비 부족하고 초기대응 실패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한번 PPT를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종합계획이 있고 세부운용계획이 있다고 제가 예결위 질의 때 말씀드렸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또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이원택 위원 종합계획에 서브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운용계획에서 축소됐어요. 여기 보면 화장실 400개에서 330개로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23년 3월 달의 정부지원위원회 회의 때지요, 총리께 보고하는 회의 때입니다. 그때 보고안건이 있고 시설물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항인데 충돌되는 내용이 하나는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제출된 안이 있고 하나는 축소된 안으로 올라갔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당시의 여가부나 국무총리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7월 달에 정부합동점검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왜냐하면 세계 청소년들한테 물량 공급을 충분히 해 줘야 하잖아요.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물량 공급을 충분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폭염대책 그늘막 텐트 이런 것 물량 공급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종합계획과 세부운용계획 또 시설물 설치 이용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가부가 발견을 못 했다는 겁니다. 서류상 이게 충돌되고 있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고 총리께도 보고되는 문건인데 충돌되는 문건이 보고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23년 7월의 정부합동점검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합동점검회의에 보면 행안부가 폭염대책 뭐 해충, 보건복지부는 의료시설대책 이런 걸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고 실제 설치하고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잼버리대회에 실제 설치한 시설물하

고는, 상부시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잼버리 대원들한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가 찾아내지 못했고 또 그것을 보완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생갯벌이다,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진이 2016년도 세계잼버리 현장입니다. 17년 사진, 19년 사진이고요, 좀 더 확대된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흙 갯벌이다 생갯벌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아까 조은희 위원께서 SOC 사업의 뭘 위해서 했다 이런, 일부 도의원 말을 따서 하는 건데 새만금 SOC는 이명박 대통령 때 바꾼 겁니다. 농업용지 100%를 이명박 대통령 때 항만·도로·철도를 놓겠다고 바꿔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9월 달에 마스터플랜 바꾸면서 공항시설 유치하겠다고 해서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왔던 것이지요. 다만 잼버리대회를 통해서 기반시설이 좀 더 빨리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가짜뉴스로 전북도민한테 두 번째 상처를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현 대표님 또 송언석 의원님 계속해서 새만금 SOC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이것이 생갯벌이다, 진흙 갯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간척지는 세계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실사를 거쳐서 결정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점토질이 아니고 사토질이라는 것도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이미 시추 과정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일본 잼버리도 간척지에서 했습니다. 간척지 사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일본 잼버리 키타라하마에서 한 겁니다. 간척지에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2015년도 사진입니다. 구글 어스 사진이고요, 2017년 사진입니다. 이게 2017년 구글 어스를 파노라마 사진으로 돌려 본 겁니다. 15년에 일본 잼버리가 끝났지만 간척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척지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염대책을 위한 그늘막이라든가 생수랄까 여러 가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본 잼버리 잘했다고 정부

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17년 그 간척지 부지입니다.

또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구글 어스에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여기에 나무, 일부 애기 나무들은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게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키타라하마의 사진입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야영장 부지와 활동장 부지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치 간척지가, 잼버리 부지가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정해졌음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전라북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결국 새만금 SOC까지 삭감한 것은 정말 전라북도 도민들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준 겁니다. 이 부분은 장관께서 결정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잼버리 전체적 준비 과정에 대한, 정말 오늘 2차·3차 질의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가부장관님과 국민의힘에서는 좀 겸허하고 진솔하게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가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것은 이따 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조은희 위원 아니요, 지금 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그것은 팩트와 관련된 거니까요. 점심 식사 후에 다시 개회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예결위에서 이원택 위원님하고 상당 부분 논의를 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권인숙 추가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한테 30초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이따가 하시지요. 다음에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일본 잼버리에서……

○위원장 권인숙 따라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점심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신상발언 1분 하신다 그랬지요?

○조은희 위원 1분 아니고 지금은 3분입니다, 아까는 1분이었지만.

○위원장 권인숙 예.

○조은희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본 위원의 잼버리 질의와 관련해서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가짜뉴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조은희 위원께서 SOC 사업을 위해 했다고 일부 도의원 말을 따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가짜뉴스로 전북도민에게 두 번째 상처를 주고 있다. 전라북도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결국 새만금 SOC 예산까지도 삭감한 것은 정말 전북도민에게 상처를 준다’, 결국은 제가 가짜뉴스를 얘기했다는 건데요.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두고 왜 동료 위원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참 유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는 전북도가 2018년 제출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세계 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원활한 수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어 났고요. 그래서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됐지만 지금 집행률이 2022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5.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 예산이 없다고, 감했다고 전북도민에 상처를 줬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서류는요, 2021년 전북도의회 예결위 회의록입니다. 당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잼버리 유치 배경을 두고 도의원의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새만금사업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 정호윤 도의원은

캠버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보자고 언급합니다. 전북도는 이어서 내부 동서도로, 남북도로 추진 당시 캠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두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젓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순천 행사와, 순천만의 정원박람회 행사를 비교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전북도지사의 리더십 그리고 순천시장의 리더십의 차이가 대회 성공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는 가짜뉴스라 그러시고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왔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료 위원이 오전에 하신 명예 훼손적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안 그러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권인숙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예, 저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PPT는 3차·5차 질의 때 제가 하겠고요.

이런 겁니다.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요구해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새만금 국책사업을 하겠다 그랬어요. 100% 간척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 농지였어요.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왜 농지를 하나라고 하면서, 거기가 동북아의 어떤 비전을 갖는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바꿉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바꿉니다. 거기에 도로, 철도, 항만, 고속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산업단지, 관광레저용지, 국제화용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2014년 9월일 겁니다. 그때 마스터플랜을 또 바꿉니다.

○조은희 위원 저를 명예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인숙 질의에는 끼어들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조은희 위원 제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위원장 권인숙 끼어들지 말고 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예,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

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공항도 넣겠다고 그랬고요, 19차 공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공항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항만은 항만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공항은 공항대로 추진된 겁니다. 추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새만금 캠버리대회가 유치된 시점이 2017년이구요. 이 모든 사업은 14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4년 9월 달에 마스터플랜을 변경합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변경했고, 그 전부터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추진된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전라북도 도의원이나 실·국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조은희 위원 부지사가 했습니다, 부지사.

○이원택 위원 부지사가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SOC가 조기에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엑스포……

○조은희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말하셔야지요.

○이원택 위원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은희 위원 아닙니다. 속기록……

○이원택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위원장 권인숙 끼어들지 말고 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부산세계박람회는 아직 유치도 안 됐습니다. 유치도 안 됐는데 예타 면제해 13조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북항 재개발로 4조를 가져갑니다, 아직 유치도 안 됐는데. 11월 30일인가 29일인가 유치가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유치도 안 됐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 하면서 11조가 갔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건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SOC가 빨리 구축되는 것이 마치 사심이고 사익을 추구한 거고 부산엑스포에 11조가 가고 예타 면제되고 이런 것은 정당한 이익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주장하신 말씀 중에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우리 정치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 젓밥에 어두운 것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항의가 된다는 것이지요.

○조은희 위원 가짜뉴스라 그러셨으니 그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건데, 동의하십니까? ‘조은희 위원께서 SOC 사업 위해 했다고 일부 도의원 말을 따서 하는 건데’……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조은희 위원 틀렸지요.

○이원택 위원 일부 도의원 말을 따 거잖아요. 아니, 일부 도의원 등을 따서 한 것이지요.

○조은희 위원 제가 부지사하고, 다 갖다 줘잖아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조은희 위원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거예요.

○이원택 위원 예.

○조은희 위원 그리고 가짜뉴스로 제가 전북도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권인숙 이후 과정은 질의시간을 이용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아니, 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권인숙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조은희 위원 제가 삭제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김미애 위원 본인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경희 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위원의 정당한 요구니까 들어 주셔야지요.

○지성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이원택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앞에 ‘조은희 위원님’이라는 이름만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그렇게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도의원’ 그것도 삭제해 주셔야지요.

○이원택 위원 예, 그 부분만.

○위원장 권인숙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는 질의 순서에 따라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장관님,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관님께서 ‘여성가족부와 경찰

청 간의 핫라인으로 피해 신고 시부터 협업해서 세밀한 피해자 지원 방안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핫라인 구축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366하고 경찰하고 지금 연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토킹 같은 경우는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2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핫라인 구축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절차도 있지만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업무를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실무자급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협의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논의의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협의회에서, 지금 내용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핫라인 구축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하기로 해서 정보 공유하고 있고 피해 신고부터 협업하기 위해서 실무자 간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의 자료를 요청했어요. 어떤 논의를 했는지 논의의 결과물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기관 간의 협의인데 자료가 없을까…… 지금 뒤에서 뭔가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한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마 논의를 내용을 그냥 정리하신 것 같은데 왜 공식적인 자료가 없을까……

여가부가 경찰에 모임 요청한 공문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네 달에 한 번 오전 11시 30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나셨습니다. 식당에서 논의 자료도 없이 협의를 하니까 당연히 회의록도 나올 게 없고 결과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하고 경찰 간의 연계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112로 신고가 오면 스토킹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면 1366으로 그냥 연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핫라인이 구축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연계 강화 이걸로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지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네 달에 한 번 모여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애써 공무원들이 만나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화번호 간에 연결해 주는 건 처음부터 그냥 피해자가 1366으로 전화 걸던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경찰한테 걸면 얘기를 듣고 ‘아,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1366으로 연결해 주겠어요’ 전화 그냥 돌려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책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아마 장관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이걸 경찰하고 여가부하고, 수사기관하고 행정부하고 수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어떤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조인력 강화 시스템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한 가지 쟁점이었던 것이 기관에서 여가부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기관의 잘못이었지요. 장관님께서 ‘통보가 있어서 만약에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을 받았으면 달라졌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여가부가 보통 기관이 그런 것을 통보하면 어떤 조치를 하나 봤더니 공문으로 매뉴얼을 송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알리는 게 끝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외에 현장 진단을 저희가 나가고요.

○**김한규 위원** 현장 진단 얼마나 합니까? 다 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중대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고 신당역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진단을 했고요.

○**김한규 위원** 그것은 사건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1년에 사건이 기관에서 얼마 정도 통보가 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한규 위원** 1년에 1300건 정도 옵니다. 현장에 몇 건 정도 가는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0건 정도 갑니다.

○**김한규 위원** 작년에 24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것들은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기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알아서 잘할지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느냐? 인력의 문제겠지요. 여가부가 인력이 충분히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일일이 다 확인할 텐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 8월에 관악산 산책로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있었고 총리가 ‘묻지마 범죄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참석했는데 장관님은 안 계셨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주무부처인데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참석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장에 제가 가 보긴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공원에서 그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김한규 위원** 물론 현장에 가신 건 좋았는데 대국민 담화에서 왜 빠졌냐고 여쭙보는 건데요, 저는 총리가 여가부를 패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가 세계잼버리 직후였고 여가부 현안질의하기 며칠 전이었는데, 장관님도 그렇지만 내용도 문제입니다. 담화문 내용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의 역할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성을 향한 이런 묻지마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적어도 담화문에는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되고 장관이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신당동 스토킹 사건 이후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책이란 게 정말 유효한 대책인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성폭력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산림공원에 가 보니까 산림청 산불 CCTV만 있고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귀가나 운동하는 공원인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살펴주는 그런 CCTV는 없더라고요.

CCTV나 안심골목길에 있는 물리적 인프라를

저희가 많이 깔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CTV 같은 것을 조금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CCTV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오는지 피드백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스토킹과 여성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여가부의 조금 더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 준비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여가부장관님, 그것 관련해서 국무총리 아니면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과 같이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응에 대해서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신림동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위원장 권인숙** 왜 안 하셨지요? 아까 그 답화문 하는데 안 나온 것도 저희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도 굉장히 문제를 느꼈고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공감은 됐지만 그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벌어졌고.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그 관련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고요.

○**위원장 권인숙** 국무회의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셨나요? 그 이후에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장관의 지위는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우선은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차관이 대참을 했고요.

○**위원장 권인숙** 차관은 그러면 거기서 뭔가 발언하셨나요,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따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으로 부의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제가 참석했던……

○**위원장 권인숙** 신림동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부산의 묻지마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

하신 적이 없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적도 없고 그랬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어제 그에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직접 주제를 했는데, 거기서 좀 논의를 했고요.

○**위원장 권인숙** 거기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거기는 민간 위원 여덟 분하고 정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위원장 권인숙** 거기는 차관급 정도 참석을 하시나요? 어떤 급이 참석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장……

○**위원장 권인숙** 국장급이 참석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원장 권인숙** 사실 저희가 장관 부처로 둔 것은, 장관급 이상의 회의들을 자주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여성 관련한 것은.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부처로 뒀다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던 거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에, 그리고 아까 총리가 나설 정도로 여성들과 그다음에 전체 국민들의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잖아요, 지금 묻지마 이런 식의 행동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 장관이 주도하는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보고도 안 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기본적으로 총리께서 하셔서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묻지마, 굉장히 강력범죄였었기 때문에 총리님이 하시면서 거기에 내용이 포괄됐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권인숙** 단순히 강력범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이런 기저에는 여러 가지, 아까 돌려차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성 혐오가 기반에 굉장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답화할 때 장관님이 빠지셨더라도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초반부터 계속 말씀했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서 나온 장관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자꾸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양의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각종 여성 대상 흉악범죄에 대해서 전혀 대처나 대책회의도 없고요. 그리고 청소년 그다음에 피해 여성들을 돌보기 위한 본연의 업무도 예산을 보면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퇴서까지 내놓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쟁머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을 때 도망간 것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게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것을 여가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런데 여가부 자체적으로 성희롱·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언제 마련됐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양의원영 위원 언제 마련됐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 이후에 마련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닙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럼 언제 마련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사건 직후에.

○양의원영 위원 언제 마련하셨는지 그 자료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의원영 위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저는 차관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셨지요? 차관님, 제출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양의원영 위원 제가 제출했냐고 여쭙봤습니다. 제출했는지 여쭙봤으면…… 제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 부분도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의원영 위원 경징계 요구서를 제출하셨어요. 경징계 요구서는 어떤 건지 아시지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다. 그리고 사실 중징계인 경우는 고의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여가부 자체적으로 스톱킹 범죄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경징계 건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다만 그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심각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또 피해자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의원영 위원 2차 피해를 하지 않는 정도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가부에서 답을 받은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답변서를 따르드리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양의원영 위원 구두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건데……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구두로 말씀드리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경징계 요구한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 얘기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여가부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얘기들은 사실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영 위원** 지금 이 건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라고 사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여가부는 그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닙니다.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규정된 것 알고 있고 그 법 이전에 진행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의원영 위원** 그 법이 통과된 게 7월이지만 이것이 논의된 것은 몇 달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피해자……

○**양의원영 위원** 제가 물어볼 때 답을 하십시오.

법이 7월 달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징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다음에 스토킹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분리조치 진행하셨습니까? 진행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의원영 위원** 장관님, 그만하세요.

차관님, 진행하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의원영 위원** 분리조치를 진행하지 않으셔서 항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분리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보낼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답하

지 않으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게 답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영 위원** 여가부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조치하셨냐고 여쭙보잖아요. 분리조치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혹시 조금……

○**양의원영 위원** 분리조치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처 내 발생한 성희롱·스토킹 사건도 주무부처가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서 어떻게 다른 부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분리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는 처벌을 원치 않아서.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어쨌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님, 양의원영 위원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양의원영 위원** 무슨 답변을 합니까?

○**지성호 위원**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지.

○**문정복 위원** 차관한테 질문을 했잖아?

○**양의원영 위원** 저는 장관한테 질문하지 않았 습니다.

○**지성호 위원** 아니, 답변을 들으려고……

○**양의원영 위원** 퇴장을 요구했다고요, 퇴장. 당신은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위원장 권인숙** 이것은 위원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지만 안 받아 주셨잖아요. 제 신상발언도 안 받아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 판단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의사진행발언한 다음에 양의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문정복 위원** 위원이 차관한테 물었고 차관이

답했고 그랬으면 됐지!

○정경희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요.

○조은희 위원 반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댓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경희 위원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이 있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정복 위원 간사 징그럽다, 진짜.

○김미애 위원 말씀 좀 가려 하십시오.

○문정복 위원 차관한테 질문했고 차관이 답변했잖아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회의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 이게 민주당 수준입니까?

○위원장 권인숙 소리지르지 마십시오. 소리지르지 말고……

○김미애 위원 지금 우리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습니까?

○지성호 위원 민주당 말투가 뭐예요? 징그럽다, 낮짝……

○정경희 위원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들으셨지요? 징그럽다?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문정복 위원 징그럽지.

○김미애 위원 왜 그렇게 반말로 하세요?

○조은희 위원 존댓말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정경희 위원님과 양의원영 위원님한테……

○문정복 위원 그만하라고요, 이제. 여기 위원님 단독으로 쓰는 회의실 아니에요.

○조은희 위원 간사의 입을 틀어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정복 위원 하지 말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오전에 실컷 들었다고요.

○정경희 위원 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정복 위원 오전에 너무 많이 들었다고요.

○정경희 위원 지금 이 사안하고 관련된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하고……

○문정복 위원 차관한테 질문했고 차관이 답변했으면 됐지요.

○조은희 위원 문정복 위원님이 위원장이세요?

○양경숙 위원 그만들 좀 하세요. 너무하잖아요.

○정경희 위원 위원장도 아니면서 왜 본인이……

○문정복 위원 아니, 위원이 지명을 해서 차관한테 물었잖아요.

○양경숙 위원 해도 너무하잖아요. 모든 위원들

발언에 다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성호 위원 아니, 장관 답변할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원택 위원 아니, 차관한테 답변을 들었고 답변을 듣고……

○지성호 위원 질문하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이원택 위원 아니, 장관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요.

○양경숙 위원 그건 위원장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성호 위원 아니, 입을 틀어막으면 뭘 들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권인숙 저는 질의응답에 관련해서는 그 위원 고유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얘기가 진행이 되었으므로 정경희 간사님한테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의원영 위원님한테 3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지난 정부에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면서 2차 가해에 앞장섰던 것이 어느 당입니까?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피해자 의사에 완전히 반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조치한 사안이었고 양의원영 의원실의 설명 요청에 수차례 응하며 피해자의 비공개 요청 의사를 밝히고 강조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공론화해 버린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치사항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가위 민주당 위원들의 여성폭력 행위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8월 25일 여가위 현안질의를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일방적인 회의 과정에서도 대변인을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서 끌고 나오는 여성폭력 행위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여가부 공무원을 끌어내는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회 자료요구권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막

무가내로 공개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국민들께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폭력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이게 MBC 저녁 뉴스 보도에 나온 것인데요, 심각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도에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를 피해자 본인이 강력히 요청한 사항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양의원영 위원님.

○양의원영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스토킹·성희롱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떤 부처보다도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다거나 그 사람이 어디 있다, 어느 소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가부가 어떤 처리를 했느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세웠느냐 그리고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적절하게 했느냐 그리고 어쨌든 인사혁신처에 해당 공무원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느냐, 이 세 가지를 갖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답변을 다르게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지 않으셨고, 현재 저희가 질의할 때까지. 그리고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피해자의 합의를 근거로 해서 경징계로 무마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은 그동안의 스토킹이나 아니면 이런 성희롱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여가부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다른 부처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2차 가해라고 하면서 일체의 답을 하지 않으

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씀하시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를 계속 언급하시면서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 국회 출석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내 어딘가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여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합의를 마치 조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협의를 하다 보면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열렸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국무위원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고 도망 다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대변인 조차 화장실에 불일 있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가 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국민을 대리하는, 그리고 잼버리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이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어볼 자격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도망간 이 여가부 공무원들과 장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스스로 도망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다못해 사과를 못 해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특권입니다, 항상 남 탓하고 변명하기를 일삼고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직원 스토킹 사건 관련해서 경징계를 하셨는데요, 이게 왜 경징계로 끝났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양의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피해자를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저희 직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양의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은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경정계가 조치를 다 하신 거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여겼고 그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피해자가 이 부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극도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연숙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혹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의원실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2022년 3월에 잼버리 일정을 1년 연기해 달라고 당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참가 청소년의 안전을 고려해서 프레젼버리까지 당시에 취소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 결정 여가부 혼자서 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유관기관들이 다 논의를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프레젼버리가 제대로 되려면 한 1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만 명이 모여서 야영지가 완전히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 12월에 부지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2022년 7월에는 프레젼버리를

의미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100주년 기념으로 그래도 작게 해 보겠다고 해서, 1000명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센터 근처에, 상하수도도 없습니다. 급수차를 갖다 놓고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도 없는 상태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개영식도 할 수 없고 영외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관기관, 질병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를 보고받아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원 총회에서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부지도 문제가 되고, 2022년 12월에 부지가 거의 조성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조성이 됐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그때 많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프레젼버리가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프레젼버리를 할 수 없던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만약에 프레젼버리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보통 1만 명 정도의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고 이동형 화장실과 샤워장이 다 설치돼야 되는 상황인데 2022년 7월은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부지가 가장 문제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위원님들이 잘, 조금 더 국민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실까 생각을 해 보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트랙에서 뛰는 거랑 자갈밭에서 뛰는 거를 마지막에 100m 끝인할 때 그게 똑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형태로 부지, 야영을 할 때는 부지의 특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부지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그리고 2016년 세계잼버리 개최 계획 수립 당시에 행사장인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지구를 2020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새만금 개발 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2017년 2월에 부지를 일시적으로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갑자기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한 이유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농지기금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실제로 이번에 잼버리 현장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지난 정부…… 저는 어떤 정부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쪽 걸쳐서, 문재인 정부 때 대회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저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특정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 400조의 부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5년 동안 지난 정부가. 그러면 SOC 예산도 많이 썼을 텐데 이것을 관광레저용지로 하기 위해서는 1.5m 봉토를 더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이런 것들 영구 설치를 하면 돼요, 고정형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원래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약속했던 형태대로 관광레저용지가 됐었다면 배수 문제라든가 폭염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m 달리기를 저희는 자갈밭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숙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사퇴서를 제출하고도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 중이신데요. 장관 월급도 받고 활발히 활동 중이신 걸로 보서는 본인이 장관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여가부장관 맞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허숙정 위원 여가부장관으로서 자신의 주된 임무, 여전히 여가부 폐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가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안을 냈고요.

○허숙정 위원 여가부 폐지인지 여쭙본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청소년·가족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숙정 위원 본인의 논문이나 이전의 발언을 보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여가부 폐지,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허숙정 위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숙정 위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허숙정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허숙정 위원 작년 7월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인사 실패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봤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관의 취임이 22년 5월이니까 장관도 그런 훌륭한 분들에 속한다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허숙정 위원 장관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가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잘 하셨다고 판단할 만큼 훌륭한 장관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잼버리 사건이 좀 있어서……

○허숙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가부장관으로서 어떤 그런 책임의……

○허숙정 위원 인정하십니까 여쭙봤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책임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책임의 주체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숙정 위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굉장히 많은 주체가……

○허숙정 위원 8월 30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누구의 책임인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셔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가부장관이나 대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하면서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허숙정 위원 장관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말뿐인 사과, 이제는 국민이 믿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허숙정 위원 그 사과 국민들이 용납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국민께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허숙정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청소년의 국제문화교류 및 체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축제가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허숙정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기획과 종합 활동, 복지·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운영의 주무 관청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허숙정 위원 그러면 본인은 주무 관청의 장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허숙정 위원 청소년 기본법 제9조에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총괄하고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에 보면 제1조·4조·5조에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위해서 국가는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여가부장관의 인가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장관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닙니다.

○허숙정 위원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허숙정 위원 조직의 최고 의결기관인 위원 총회의 위원장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공동조직위원장이 같이 맡고 있습니다.

○허숙정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닙니다.

○허숙정 위원 위원 총회의 위원장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 총회 위원장은 맞지만 실무위원회는 아닙니다.

○허숙정 위원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주체 어디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잼버리?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카우트연맹입니다.

○허숙정 위원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이지요.

주관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위원회지요.

○허숙정 위원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다섯 분이 계십니다.

○허숙정 위원 본인이지요? 여기 다섯 분 안 나와 계시니까 본인 맞잖아요. 맞으시지요? 위원장 맞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김윤덕 의원님도 다섯 분의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사람입니다.

○허숙정 위원 위원장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직접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허숙정 위원 여가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숙정 위원 주무 관청의 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임, 여가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러 주체가 참여했습니다.

○허숙정 위원 사과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주무 관청의 장으로서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 국민이 바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못해 사표 내시고 수리되지도 않는 것……

이 상황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장관의 그 의지가 이런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숙정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기 어렵다면 잼버리와 관련된 장관의 역할, 그 책무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은 잼버리 현장점검 언제 처음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9월에 갔습니다, 2022년 9월.

○허숙정 위원 작년 9월에 가셨지요.

다음 현장점검 언제 가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 해 4월에 갔습니다.

○허숙정 위원 23년 4월입니다. 7개월간 현장점검 한 번도 안 한 이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아닌 다른 차관님도 가셨고 실국장도 다 다녀왔습니다.

○허숙정 위원 22년 12월 7일 이주배청소년 체험 캠페인은 가십니다. 거기 체험 캠페인 몇 명 참여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허숙정 위원 잼버리 몇 명 참석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약 4만 3000명 참석했습니다.

○허숙정 위원 올해 5월 17일, 올해 7월 24일까지 총 네 번의 현장점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도 1·2차 안전점검 실시했습니다. 장관, 직접 참관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2차 안전점검은 행안부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숙정 위원 뭘 점검하고 뭘 지적하고 뭘 조치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행안부가 했습니다.

○허숙정 위원 질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장관, 잼버리가 파행됐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숙정 위원 8월 6일 브리핑에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대원들이 만족하고 있다. 8월 8일 브리핑에서 위기 관리능력을 보여 준 기회다, 자화자찬하셨고요. 오전 국감에서 초기에는 미숙했으나 현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유종의 미를 거뒀고

재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잼버리 파행 인정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고……

○허숙정 위원 인정 안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허숙정 위원 재평가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잼버리 파행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숙정 위원 본인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시고 잼버리 파행도 인정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책임 소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제 책임이 얼마인지……

○허숙정 위원 파행이라고 인정하시나 여쭙보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에 다른 책임이 얼마인지 그런 게 다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숙정 위원 재평가받으면 파행이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잼버리 파행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왜 제가 단답형으로만 얘기해야 됩니까?

○허숙정 위원 본인은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파행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닙니다.

○허숙정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파행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숙 위원 운영에 약간의 애로만 있었어요?

○위원장 권인숙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얹혀 놓고 무슨 질문을 해요?

○김미애 위원 제가 질의 좀 합시다.

부산 해운대울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얹혀 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고……

○김미애 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질의 좀

합니다.

부산 해운대읍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에 와서 느낀 게 무슨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재난도 있고 사건, 사고, 참사 이런 게 있는데 그때마다 헌법 7조 1항을 늘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 규정인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한 부분, 누구의 특별한 거라기보다 총체적인 책임이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잼버리가 2017년부터 계획이 되었고 확정이 된 건데 그러면 그때부터 각자 맡은 역할을 잘했더라면 그리고 책임지고 그 현장에 수시로 다녔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부 탁상공론, 안일한 대책 이것이 저는 결국이 사태까지 초래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는 이유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프레젼버리도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미흡한 건 뭔지 개선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오미크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에 21년 8월에 예정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프레젼버리는 1공구에 예정되어 있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한국농어촌공사가 1공구에 매립 등 기반 정리를 한 게 2020년 연말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완전히 부지 조성이 된 것은 2022년 12월입니다.

○김미애 위원 1공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좀 더 따져 봐야 되는데 아마 1공구가 좀 더 빨리 됐을 수는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1공구는 빨리 되었고. 그러면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 전북이 상하수도, 야영지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그다음 샤워실

화장실 급수대 천막 등 상부시설 공사는 조직위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젼버리를 할 수 없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북도가 상부시설을 2022년 1월에도 하나도 안 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기반시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기반시설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21년 8월은 꿈도 못 꿀 일이고 그다음에 연기했던 22년 8월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것을 당초 예정대로 하려면 20년 하반기나 21년 상반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레놓고는 20년 12월 28일 날 송하진 집행위원장이—당시 전북지사지요—화상으로 개최된 잼버리조직위 집행위에서 1차 회의 때 집행위원 한 분이 ‘저는 프레젼버리를 22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21년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프레젼버리가 21년에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걸 뭐냐 하면 서로 간에는 예정된 날에 하지 않고 22년에 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제가 있기 전의 일이어서……

○김미애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21년 8월은 물 건너갔고 그러면 22년 8월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해 본행사가 제대로 개최될 건데 안 됐어요. 그것 안 되고 결국은 취소하기에 이르렀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예행연습 없이 곧바로 23년 세계잼버리를 주관해야 하는 여가부의 입장은 어땠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보이스카우트의 구호가 뭔지는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준비하라고입니다. 비 프리페어드(be prepared)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준비성은 보이스카우트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전 세계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의 잔치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초래해 국격을 실추

시킨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공적으로 하리라고 믿은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께 큰 상처를 준 겁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애초에 여가부든 전라북도든 조직위든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여줍니다. 왜냐, 저는 개막식에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전날 가면서 봤습니다, 낮에 가면서. 그 넓은 벌판의 텐트 안에 들어가면 온실효과 때문에 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다음 날 저 혼자도 가 봤습니다. 그 위에서 봤어요, 걱정이 태산이어서. 그런데 다행히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사태 전환을 해서 어떠한 인명사고도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것 저것은 위기에서 참 잘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국민들의 인식은 여가부는 이런 세계대회를 개최할 부처가 안 된다는 그걸 확인시켜 줬다고 저는 봅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가부가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그다음에 국제대회를 치러 본 경험이 없어서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데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은 부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잼버리대회 조직위 사무국이 집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애를 썼고 저도 8월 1일 현장에 가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서 빠르게 안정화가 돼서 사실은 대회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잘 치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어떤 운영의 애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집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지고, 여성가족부도 성실하게 감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전 정부 타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현 장관이나, 사표 낸 장관이나 똑같습니다.

사표 낸 여가부장이 마지막 날 케이팝 콘서트 개최해서 잼버리 성공했다고 정신승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9월 12일 날 사표 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사표 날짜는 제가 좀……

○문정복 위원 9월 12일 날 사표 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정복 위원 15일 날 대통령하고 송별회 하셨지요, 9월 15일 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

○문정복 위원 이창양 장관, 권영세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 송별회 하셨지요? 끝까지 가자고 애기하셨는데,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불리하면 대답 안 하는 스킬은 여전히 대단하시고, 이미 시효가 지난 장관이 국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도 난센스이기는 한데 어쨌든 장관 신분이니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 현장에서, 폭염과 벌레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공짜로 숙박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생태탐방원 애초 사용목적은 뭐였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생태탐방, 일반국민이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복 위원 아니요, 행사 기간 내에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조직위 사무국에서……

○문정복 위원 알아요, 조직위원장이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거기서 묵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생태탐방원을 받아 놓으셨어요? 임대해 놓으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건 제가 하지 않았고 사무국에서 했고요.

○문정복 위원 사무국은 장관 휘하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집행에 제가 일일이 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문정복 위원 해외 VIP용이지요. 그런데 여가부 직원들이 여기에서 머물렀어요. 영내에서 함께

고통을 견뎌야 될 여가부장관 포함 직원들이 다 여기서 머물렀어요.

거기가 31개 실인데 25개를 여가부가 임대를 했습니다. 받았어요, 통으로 받았어요. 몇 명 숙박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십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명단을 안 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명단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명단 13명이라고 했는데 25개 방에서 13명이 잤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5개 방에서 13명이 자지 않았고요. 저희 13명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실제로 많은 직원들은 또 글로벌 리더센터나……

○문정복 위원 명단 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국립공원공단하고 확인해 본다고, 맞춰 본다고 명단 내라고 했는데 명단 왜 안 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3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문정복 위원 13명이 문제가 아니라 명단 내라고요, 누구누구가 거기 사용을 했는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성명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안 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름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문정복 위원 안 냈어요. 그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부처 공무원들이! 부처 공무원들이 무슨 개인정보예요? 어쨌든 내시고요.

생활관을 여가부가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명단 내시고, 저희가 국립공원공단과 맞춰 보고, 몇 실을 몇 명이 사용했는지 맞춰 보고 거짓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능하면 책임감과 함께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성실함도 없는 장관과 차관의 말로가 지금 어떤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잼버리는 여가부장관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만큼 책임도 큼니다. 잼버리의 파행은 여가부장관의 무능 무책임 때문이고요.

차관, 청소년정책 몇 년이나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청소년실장도 했고……

○문정복 위원 몇 년 했다고 얘기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한 4~5년 한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리고 외부 기관에도 근무했지요, 청소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정복 위원 포함해서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문정복 위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해 보셨으니 알겠는데 장관이 무능하면 차관이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 여가부 폐지에만 골몰하다가 책임 놓아 버린 것이지요? 지금 항간에는 자폭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도는데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가……

○문정복 위원 최선 다한 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

다.

○문정복 위원 1분만 더 쓸 테니 시간 넣어 주시고요.

잼버리 비상대피 당시 53개 대학에서 기숙사를 임시숙소로 제공하면서 관리비용 50억 든 것 아시지요? 장관, 압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뭐가 비슷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이요.

○문정복 위원 예산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문정복 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기숙사 예산은 교육부가 집행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교육부가 했는데 조직위원장인 여가부장관이 최종 타 부처에서 얼마 사용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개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얼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문정복 위원 유사한데 얼마냐고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

○문정복 위원 모르잖아요. 얼마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거짓말하지 마요. 49억 5000만원이에요.

정산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정산 중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문정복 위원 다 정산됐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문정복 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산된 서류가 아직 저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정산 중인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입장에서는……

○문정복 위원 교육부에서는 다 정산됐는데 여가부는 아직 정산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라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정산했다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돈으로 정산했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불용예산이나 그런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거짓말하지 말아요. 무슨 불용예산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비비.

○문정복 위원 불용예산 항목이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비비라고 합니다.

○문정복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비비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장려금으로 한 겁니다. 왜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것 뭐 있어요?

지금 장관의 무능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이 펑크가 난 거고 그것 우리 아이들,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 취업장려금으로 정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이것은……

○문정복 위원 뭐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정복 위원 필요? 아니요, 미안하지 않냐고요? 아이들한테 써야 될 돈이 장관의 무능으로 잼버리 파행되고 그 파행된 뒤치다꺼리하느라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인숙 정리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태풍으로 인한……

○문정복 위원 태풍까지 고민했어야지요. 그게 유능한 장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태풍이 왔을 때 경로를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경로에 따라서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 어디 기숙사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인숙 정리해 주시지요.

○문정복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기상청에 한 달 전까지도 이미 다 예견돼 있고 기상특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게 주무부처의,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정도도 준비 못 합니까? 그렇게 무능해요?

○조은희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편파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이따가 질의를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문정복 위원 무능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무능하지 않습니다.

○문정복 위원 당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능해. 국민들이 다 알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반말하지 마세요.

○문정복 위원 반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문정복 위원 나는 지금 사표 내고 자격 없는 장관이 와서 답변하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뭐요? 뭐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하세요.

○위원장 권인숙 문정복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문정복 위원 뭐요!

○조은희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한테 반말하고 국무위원한테 반말하고……

○정경희 위원 국무위원한테 반말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정복 위원 뭐요!

○지성호 위원 국민이 대표로 보낼 때 반말하라고 보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 앞에서 성실하고……

○문정복 위원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대꾸예요!

○지성호 위원 국민이 반말하라고 보냈냐고요!

○조은희 위원 하느님이세요? 천왕이세요, 천왕. 천왕도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정복 위원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대꾸입니까?

○위원장 권인숙 문정복 위원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답변해야 되는 제 태도는 맞지만 그렇다고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만하세요. 장관님, 그만하세요.

○문정복 위원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것에 비하면 김현숙 장관은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위원장 권인숙 문정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경희 위원 정회해 주세요, 정회. 진행을 하시든지 정회를 하지요.

○양의원영 위원 세상에 나라 망신을 시켜도 그렇게 망신시켜 놓고서 얼굴 들고 거기 앉아 있어요.

○김미애 위원 다른 위원들도 존중 좀 해 줘요.

○문정복 위원 무슨 돈으로 뒤통다꺼리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정경희 위원 정회를 하든지 진행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다음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지성호 위원 저 오늘 처음이에요.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진행 좀 잘해 주세요.

○지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권인숙 질의해 주시지요.

○지성호 위원 국민의 대표라고 보내도 반말하

라고 했냐고요.

○문정복 위원 위원님이나 잘하세요.

○지성호 위원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반말하잖아요.

○조은희 위원 우리한테도 반말하지 않아요. 반말은 하지 마세요. 존중 좀 합시다.

○위원장 권인숙 질의해 주시지요.

○신현영 위원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숙 장관님, 오랜만에 국회에 오셨는데요. 저는 여가위에 오셨을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동안의 챔버리 사태와 그리고 여가위에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당당한 모습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매우 당황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겸손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취임사 때 국민 여러분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것 잘 이행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사의 표명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인가를 안 해 줘서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가 안 해주시면 장관직은 계속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만약에 계속 자리에 있다면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위원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여가부 폐지인 것이지요,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동시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여성·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제 업무입니다.

○신현영 위원 기능을 강화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모순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 개편은……

○신현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직 개편은 어느 정도로 플렉서블(flexible)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취임 이후 1년 반이 지났어요. 본인이 그러면 여가부장관으로서 수행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 줄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본인의 평가를 냉정하게 한다 그러면 50점은 넘는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지 더 나은 자세로 여가부장관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사표 내시고 인가가 안 됐다는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못했다,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말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왜 그런 질문을 하나? 지금 예산이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다 삭감됐습니다. 결국에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다 삭감합니까? 이건 아주 모순적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가부 구성원들한테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렵고 무거운 짐은 제가 먼저 짊어지겠다. 가장 힘든 일도 제가 먼저 하겠다’라고 강조했었어요. 장관의 무한책임을 얘기하셨는데 여가부 직원들은 지금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어요. 여가부 직원들한테도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직원들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다 열심히 소명의식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관님이 제대로 상황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가부 직원들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그리고 눈치 보느라고 위축돼 있어서 제대로 기능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침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기조실장님의 부적

절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김행 후보자 인칭 패인테 실장님, 저거 뭐 하는 사진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예?

○**신현영 위원** 김행 후보자한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글썽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신현영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예.

○**신현영 위원** 오늘 되게 국무위원처럼 얘기하시네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인처럼 얘기하세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신현영 위원** 본인의 무의식 중에 나온 사진인가 봐요. 김행 후보자한테 발언하지 마라, 제지하는 지령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 문제가 커요. 국회에서 인칭 때도 그렇고 불성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기조실에서 매우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예산결산 현황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내역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장의 부적절함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방어만 하고 있는 게 과연 기조실장인지 장관의 정무보좌관인지 저희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인칭 출행랑 사태 때도 대기실로 가 가지고 위원장실, 행정실 관계자가 기조실장을 찾아 가지고 문 두드리는데, ‘김행 후보자 어디 있냐?’ 이랬을 때 문 열어 잠그셨지요?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시키셨나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아닙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문 열어 잠그고 들어가셔서 아무런 조치 안 하셨어요?

○**조은희 위원** 제가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 실장님은 뭐 하셨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안에 있었습니다.

○**신현영 위원** 정말 무기력하십니다. 여가부의 기능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분들이 인칭 장관후보자나 김현숙 장관을 실드 치면서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와 여가위의 기능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지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신현영 위원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가부 폐지.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영 위원 조직 개편과 폐지는 달라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세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시간 가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

○신현영 위원 왜 답변 못 하세요?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 못 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 대답하시고요, 아니면 폐지에 동의하시면 명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영 위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니까 직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라고 뭐라 그러고, 직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추겠습니까?

실장이 공무원으로서 조직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장관의 정부보좌관 노릇을 하면서 방어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여가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사실은 끼어들기는 다 마찬가지로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끼어들기나 이런 건 안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장관님,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법적으로는 바다 위에서 열렸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정경희 위원 잼버리 부지는 토지 등록은 커녕 매립 준공조차 하지 않은 공유수면, 즉 법적으로는 바다입니다. 따라서 매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조차 하지 못한 채 잼버리대회를 치렀습니다. 잼버리 개최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작년 12월 말에서야 매립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지요.

장관님, 잼버리 부지가 농지용으로 매립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애초에 농지용으로 내부 배수로 없이 평평하게 매립됐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흙탕이 생기고 물웅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모기가 들끓어 가지고 결국 세계 각국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을 물어뜯은 것 아닙니까? 이게 새만금 잼버리가 진흙탕 잼버리가 되고 만 이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는 문재인 정권과 전라북도가 멸절한 다른 새만금 매립지를 놔두고 난데없이 생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가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 화면에 보시면 맨 남쪽이에요. 그래서 해창갯벌 훼손하면 안 된다고 시위까지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1000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해창갯벌을 새로 매립해서 잼버리 부지로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일본에서도 갯벌을 매꾼 땅에서 세계잼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잼버리 부지는 1965년에 조성이 된 거고요, 이미 50년 전에 매립을 끝낸 곳입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일본 잼버리 부지에는 나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면 보시면 활동장 부지 내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야영장 부지를 체크해 줘야지.

○정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야영장이기 때문에 텐트를 치기 쉽게 일부러 나무를 안 심은 것이고요 이쪽은 활동장입니다.

매립사업을 담당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5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가 자라려면, 다 자

란 나무를 옮겨 심는다 해도 그늘을 형성할 정도가 되려면 5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부지 조성하는 데 5년 반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결국은 상부시설을 설치할 시간이 7개월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커녕 상부시설을 설치할 시간도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왜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느냐, 한마디로 잼버리를 볼모로 해서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2017년 11월에 전라북도의회에서 한 발언을 보세요. 도의원이 '세계잼버리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라북도 관계자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질문했던 도의원도 뭐라고 했느냐, '인프라를 좀 더 빨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빼기 위해서 새만금에 유치한 것 아니겠냐'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염불에는 뜻이 없고 잼밥에만 눈독을 들인 겁니다.

장관님, 기존 매립지를 놔두고 새롭게 생갯벌 매립하는 데 국민 혈세가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1800억이 넘습니다.

○정경희 위원 1846억 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드넓은 해창갯벌, 아까 축구장 1000개 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부지 매립이 지지부진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에서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일단 매립하고 그다음에 관광레저지구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편법을 제시했고요, 이 편법 그대로 관광레저용지를 농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총사업비가 1171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1.6배나 큰 비용을 갯벌 메우는 데 다 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관광레저용지도 아니고 농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관님, 잼버리 전후로 비가 와도 배수가 잘 안 됐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농어촌공사가 외곽 배수로로 만들고 안의 소배수로, 내부 배수로로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있었는데 5월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올해 5월하고 7월. 그때

소배수로를 5월부터 만들기는 했는데, 제가 9월에 대회가 끝난 다음에 가 봤는데요 농어촌공사가 만든 대배수로도 평평합니다. 굴곡을 지게, 굉장히 깊게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물을 가워서, 농사짓기 위해서 만든 농지 땅이라서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잼버리 개최 전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침수대책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인 배수를 원활히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자체 내 배수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농업용으로 매립을 해 놔기 때문에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는 이 부지를 농지로 되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지금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철거를 하고 있지요. 이 시설을 올해 말까지 철거를 하는데 철거에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저희가 상부시설은 철거를 했어요 상하수도도 아직, 기반시설은 철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경희 위원 지금 철거비가, 상부시설 짓는데 300억이 들었다고 그러고요 이것 철거하는 데 58억이 든답니다. 며칠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야영장의 샤워장 이런 시설물이 조악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안에 모두 원상복구해야 되니까 철거하기 쉽게 모빌 화장실, 모빌 샤워장으로 설치한 거지요. 맞습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기본적으로 이동형으로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고정식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간이식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모든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결국 애초에 문재인 정권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달은 부지를 잘못 선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어서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장관님, 최근 여성폭력 피해가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단순한 하나의 폭력이 아니라 다중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맞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토킹 신고도 4배 늘어나고 교제폭력 신고도 30% 이상 증가하고 스토킹하고 가정폭력이 복합돼서 나오는 것도 26% 늘어나고 가정폭력 신고는 도리어 조금 감소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최승재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증가하고 가정폭력 감소하고.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 전달체계는 20~30년 전 구축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전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지 보면 현장에서는 인구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서는 통합상담소가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군구별로 적정 상담소 규모를 산출하고 통합상담소를 확충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국비 지원 현황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실적 분석을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폭력 초기 게이트웨이는 여성긴급전화1366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승재 위원 경찰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1366 중심으로 홍보를 하면 인지도나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피해자 통합 지원의 흐름이 일부 지자체가

1366 통합 지원체계를 자발적으로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런데 이 1366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 근거를 가정폭력방지법에 두고 있어서 현장과 근거 법률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66 근거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경찰청과 연계해서 광역 단위 허브 기능을 하도록 예산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 폭력 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실 아직도 미미해요. 성폭력, 스토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66 법적 근거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저희도 1366 법적 근거를 가폭법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고 예산을 하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이 감소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감소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정말 아껴 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조정해서라도

청소년 관련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을 조정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겠다. 청소년 예산 10배, 20배로 더 증가되어서 나중에 필요한 데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장관님,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대회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여야 정권을 뛰어넘어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국책사업인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고전을 일단 경청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전북도민의 열정으로 진행된 잼버리대회를 망치자 전북도가 행사의 주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에서 치러졌다는 것까지 들먹이며 새만금을 정쟁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기막힌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예산까지는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100%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6626억 중에 78%를 삭감해 버리고 22%인 1479억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질의에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복장으로 개영식에 참석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보복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예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비열한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중앙정부가 주도한 잼버리대회 실패를 덮기 위해서 새만금 사업 전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무능과 실책이 전북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북도와 전북도민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끝나지 못해서 상실감을 느끼실 전라북도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경숙 위원 위로하는 것하고 사죄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잼버리……

○양경숙 위원 말장난하지 마세요.

화장실, 샤워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청소를 한 것은 책임자인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전북도의 공무원 482명, 민간 2451명, 자원봉사자 1283명 등 4000여 명이었습니다. 태풍 상륙 전에 영지 내 쓰레기 수거를 한 것도 전북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을 좌초시키는 정치 보복까지 당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장관은 잼버리대회 개최 일주일 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전 부처가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양경숙 위원 그러면 잼버리대회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주질의에 이어서 더 지적하겠습니다.

잼버리대회에 편성한 사업비가 1171억인데 행사 이후에 온열사고 등이 터지자 여가부는 78억을 추가로 집행했고 잼버리 대원들 철수 과정에서 사용된 각 지자체 보전비용 83억 이것은 기재부로부터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더기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장관은 잼버리대회는 장관 취임 이후에 15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라면 자질 부족과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조직위와 여가부의 예산집행 내용도 누더기입니다. 1171억 예산의 74%인 870억은 조직위원회가 집행하도록 했는데 조직위는 사업 예산 669억

중에 64%인 425억을 16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그중에 14개는 수도권 업체입니다. 전체 계약 금액의 무려 75%인 479억 원을 수도권 업체에 배분했고 21%만 전북 업체에 배분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현지 사정을 전혀 알 리 없는 수도권 업체 수의계약이 대부분인 것 또한 챔버리대회 실패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 방식도 대부분 수의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계약 281건 중 수의계약이 무려 81%인 228건이나 됩니다. 공개경쟁이나 심지어 제한경쟁도 없이 80% 이상이나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고 비리 의혹도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약 과정과 시기는 예산집행이 얼마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전체 계약 건수 281건 중 44.8%인 126건이 행사 진행 직전과 행사 도중에 수시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리해 주시지요.

○양경숙 위원 장관, 정말로 반성할 것 없어요? 이런 지경인데도 제대로 사죄하지 못합니까? 초기 운영만 잘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장관이 임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 번도 전라북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수의계약은, 저는 조직공동위원장 5인 중 1명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김윤덕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전부 30억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만 전결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조직위 사무국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이 수도권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전북이……

○양경숙 위원 자료를 토대로 말씀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다릅니다.

○양경숙 위원 자료 보여 드릴게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도 자료 갖고 있

습니다. 자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위 사무국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누더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누더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전라북도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화장실 청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8월 2일 오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위 사무국에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허위보고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인력이 그렇게 적었다는 것은 8월 2일 날 알게 됐고 그래서 현장 부안군 근처에서 빨리 청소하실 분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랑 긴밀히 통화하면서 전라북도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권인숙 이 관련된 것은 추가질의에서 더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문정복 위원 자료 얘기 하나,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인숙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문정복 위원 자료.

○위원장 권인숙 자료 요청입니까?

○문정복 위원 예.

지금요, 장관께서 답변하는 중에 여가부 자료는 다릅니다, 여가부 자료는 다릅니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감 위원들한테 자료가 성실하게 배부되지 못해서 이쪽 자료하고 저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 다 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는 게……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제출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실제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수도권과 전라북도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하여튼 다르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자료를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권인숙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위원장 권인숙 아니, 저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자료로 주세요.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또 추가질의에서 문제를 해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용혜인 위원 2011년 말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7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도어록 비번을 바꿔 달라는 게 마지막 부탁이었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가해자를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가해자들은 뻔뻔했고 학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담임교사가 범정에 나와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고립된 학교폭력 피해자 곁에 국가가 없었다,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추진했던 정책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확히 어떤 연도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초기에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용혜인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으셨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처음에 연도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2011년 대구 중학생의 아파트 투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을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았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사실은 이 사업 배경…… 117 절의가 나올 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고 있는데 연도가 2013년이어서……

○용혜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시·도교육청과 합동을 해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을 했어요.

지금도 117센터 사건 접수가 매해 계속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117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고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늘고 있고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유관부처마다 난색을 표하는데 117센터 예산을 삭감하신 이유가 뭘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교육부·경찰청 중심으로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1388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이 있어서 그것을 학교와 연계를 강화해서……

○용혜인 위원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건 여성가족부가 그러면 11년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경찰청과 교육부가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부처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있고 상담사 인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특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 속에서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합의잖아요? 어렵게 마련된 피해자 지원대책이 지금 단숨에 후퇴하게 됩니다. 정말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도 장관님께서 기억하실 텐데 교직원들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집단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장의 피해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에 3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해자들이 피해학생들의 장애를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의 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교육이 절실했고 장애학생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절실했거든요. 이런 절실함에 여성가족부가 응답해서 시작한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성인권교육사업 말씀……

○옹혜인 위원 맞습니다. 성인권교육입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성교육이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싫어요’ 이런 말만 반복하지 않고 장애학생이 사랑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기르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는 계속해서 고발이 되고 있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더 너른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왜 중단되어야 하고 폐지되어야 합니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성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이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를 통해서 관련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통해서 저희가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 운영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모든 장애 유형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고요. 그리고 성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성인지 관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10년간 추진을 해 온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성인권교육사업을 효과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했고 경기도는 사업 필요성이 계속해서 있다, 그래서 도비 100%로 재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도 국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에서도 양성평등의식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의견을 했어요.

그런데 미니부처 소리를 듣는 여성가족부도 예산이 1조 7000억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1년 지출액이 656조 원인데 성인권교육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정리를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5억 5600만 원입니다.

○옹혜인 위원 5억이예요, 5억. 50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5억이예요.

그러니까 장애청소년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2024년 지출액의 0.00008%도 못 쓰겠다는 것이고 여성가족부 예산의 0.03%도 안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런 것이, 불과 5억도 못 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식의 약자와의 동행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재보충 질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경태 위원 장관님, 지금도 챔버리에 대해서 초기 운영 부족이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찌됐건 파행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할 때 화장실 샤워장 폭염 해충 치료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작년 국감 때 이원택 위원님 질문에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또 태풍·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았다고 했는데요. 왜 대책을 다 세워 놓았는데 폭염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21년 12월에 세부운영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저한테 국감에서 질의할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폭염이나 해충이나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에 2021년 12월의 세부운영계획에 따라서 잘된다
고……

○장경태 위원 점검회의 별도로 없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에는 점검회의
를 굉장히 많이 했지요. 제가 직접 현안 점검회
의도 했고 그다음에 국조실이 TF 회의도 했고
다양한 회의를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3일 날 준비현황 브리핑하실 때 중
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우수 인력도 파견받으시
고 민간 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장경태 위원 어느 정도 파견받고 어느 정도
확충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민간 인력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게 정주여
건하고 그다음에 단기직이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정확하게 규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래서 저희가 한 사
오십 명 정도를 더 민간에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나중에 2023년 3월에 와서는 정부 인
력, 공무원 인력을 20명 더 증원하고 민간을
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랬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왜냐하면 여덟 차례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인력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7월 15일 날 오송 참사 있고 나
서 7월 20일 TV 인터뷰하셨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실내보호소 342개를
이미 만들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고 재난대응
행동매뉴얼도 이미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됐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42개소는 제가 리스
트를 다 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재난대응
매뉴얼도 조직위 사무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
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잼버리대회가 조기 퇴영
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된 이유는 저는 현장에
서의 대처가 매우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미 8월
1일 날 개영 이후에 온열질환자 21명 발생, 8월
2일에 88명 탈진 및 부상, 경찰서는 갑호 비상을
내렸고요 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 발령을 했습니
다. 8월 3일에는 온열환자 108명으로 집계되고

구급출동도 304건에 이릅니다. 불과 3일 만에 상
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보았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
셨습니다.

8월 4일 날 코로나 환자까지 28명에 또 쿨링버
스 130대까지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5일에
감염자는 70명으로 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각국의 대표단이 퇴영을 결정합니다.

잼버리 퇴영은, 원래 잼버리 기간은 13일간 하
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입니다.

○장경태 위원 12일간 하기로 했는데 8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조기 종료했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 잼버리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돼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건 태풍 때문에 그
렇게 됐습니다.

○장경태 위원 태풍도 있지만…… 태풍 계획도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조기 종료도 계획에 있
었던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태풍이 되면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있었던 거지요.

○장경태 위원 그건 당연하고요. 그 계획상에,
대응 매뉴얼에 태풍이 올 시에 조기 퇴영한다 혹
은 잼버리 행사를 종료시킨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집으로 귀가하는, 소
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다가 다시
입영지에 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잼버리 행사
자체를 종료하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342개소는 잠시 대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매뉴얼이고요.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운영 부족이라고 생
각할 수 있고 역올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됐건
정상적인 잼버리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파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12일간 해야 되는 그리고 대피 매뉴얼
다 있는데 갑자기 조기 종료하면 그걸 누가 파행
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러니까 342개
소는 잠시 갔다 오는 곳이고 실제로 태풍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8개 시도로 분산해서 다 옮겨 간
것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서 ‘전 대한민국이 잼버리 입영지다’라고 하셔서 사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군인들 다 부대에 안 있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흩어 놓으면 되지요, 대한민국 전국이 다 국가안보 수호해야 될 대상지인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건 내용이 다르지요.

○장경태 위원 저는 뭐 그렇고요.

외부 숙소 이것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데 8월 4일 날 신변 위협이 있으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8월 3일 오전에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가 있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3일 저녁 단 하루도 잼버리 입영지에서 현장을 지키는 생각은 없으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실제로 생태탐방원에 묵기는 했지만 거기서, 굉장히 늦게 들어갔고 잠은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래도 어찌 됐건 잼버리 행사 자체가 입영을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입영을 했을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문제와 어떤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지를 장관께서 직접…… 총리께서 현장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8월 1일부터 계속 생태원에 계셨던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현장을 지키라는 말씀이 숙영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셨다. 숙영이라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백브리핑할 때 말씀하셨고.

○장경태 위원 8월 3일 날 그러면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생태원에 가서 주무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저는 글로벌 리더센터 안에 거의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 순천만의 정원박람회, 둘 다 호남권인데요. 순천만의 정원박람회는 국비를 7.5%만 받았는데도 성공적이고 지금 잼버리는 국비 플러스 SOC 이런 것을……

○이원택 위원 3.5 대 6.5. 지방비가 6.5, 국비가 3.5예요.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스톱 좀 해 주십시오.

질의를 못 하겠어요.

○이원택 위원 하세요.

○조은희 위원 위원님, 질의 논점을 흐리게 하시잖아요.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권인숙 질의 진행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진행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오전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이유 또 잼버리의 초기 운영 실패, 파행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오전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조직위원장이었던, 공동 조직위원장이었던 장관님께 또 집행위원장이셨던 전북도지사에게 책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져야 할 두 분이 지금 무풍지대에서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김윤덕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이십니다. 최창행 사무총장님이신데 처음에 이게……

자료를 좀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부터 이게 컨트롤타워가 잘못됐습니다. 나눠 먹기식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여가부장관 쪽에서는 기업인을 해 달라고 그랬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다음에 전북도에서는 반기문 총장 등 세계적인 유명 피겨(figure)를, 글로벌 피겨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전북도의 연맹회장 이신 김윤덕 전 회장께서 계속 파고듭니다. 장관 과도 오찬하고 누구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조직위원장이 되세요.

조직위원장이 돼서 보면, 공동조직위원장이 됐는데 그동안 여가부장관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불박이는 이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지요. 그 두 분은 세트로 7년 내내 있으십니다.

김윤덕 조직위원장은 16년 준비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조직위원장까지 했는데 PPT 화면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조직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출마하고 이재명 대선캠프 조직본부장도 하시고 전북도지사 경선도 출마하시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 본인의 정치적인 도약을 위해서 이 챔버리를 활용한 거지요.

그리고 PPT 3번을 보시면 고향 부안군의 세금 받아서 미국에 외유성 출장도 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 일정은 이틀뿐이고 전부 견학이에요.

또 이분에 대해서…… 잘하면 내 덕분, 못 하면 여가부 탓 이분이 그게 굉장히 심하시다고 생각되는데……

PPT 4번을 보세요. 대회 일주일 전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사무국을 구성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조직위 사무국을 구성……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정옥 여가부장관과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셨으니까. 그런데 최창행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이 사무총장의 연봉이 부총리급입니다. 7년 내내 그래요. 부총리가 얼마나? 연봉이 1억 4000인데 이분은 1억 8000이에요. 그런데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지금은 어디 숨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옥 당시 여가부장관과 김윤덕 조직위원장한테 최창행 사무총장을 왜 그렇게 했는지, 과도하게 임명하고…… 이분이 또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 퇴직공무원 알음알음해서 이렇게 부총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하는 자리에 했는지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제가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장관님께서서는 뒤늦게 오셔서 이것을 파악하셨을 텐데 이 사무총장님하고 김윤덕 조직위원장님의 책임은 느껴지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민주당은 왜 김윤덕 조직위원장과 최창행 사무총장 보호에 급급한지 이 자리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두 분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제대로 들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뜨내기지만 이 두 분은 7년 내내…… 사무총장은 부총리보다 연봉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조직위원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

심스러운데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여성가족부에게 보고를 했다면 초기 운영의 애로는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28일도 폭염과 벌레 대책에 대해서 추가 주문을 했고 7월 24일 날 현장에 갔을 때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했고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 준 장소에서는 실제로 다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없는지 얘기를 제가 아주 여러 번 했고 제가 걱정하니 저희 차관님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최창행 사무총장이 저희에게 부실보고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은희 위원 채용 과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채용은 이정옥 장관님 때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에 전문성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윤덕 조직위원장이 가장 오래 계셨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 자유롭게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준호 위원 차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들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들 정부안을 보니까 전년 대비 38% 감소가 됐는데 이러면 청소년 관련 사업들 전체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런데 위원님, 조금 이게……

○한준호 위원 아니요, 그냥…… 가능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한준호 위원 가능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일단 예산을 조금 말씀드리면, 챔버리 예산이……

○한준호 위원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사업 총 12개 세부사업 중에서 35개 내역사업들 340억 정도 되는데 일부 또는 전액이다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 한 3개만 뽑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4개 내역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동안 어쨌든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이, 중요한 부분이 동아리 지원사업하고 어울림마당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한준호 위원** 조금 짧게, 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재정사업 평가에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준호 위원** 회계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를 다셨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것도 있었지만 큰 이유는 이것을 청소년위원회 시절부터 20년 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준호 위원** 왜 하필 이 시점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한준호 위원** 왜 하필 이 시점에 재구조화를 갑자기?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고요?

○**한준호 위원** 예.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어쨌든 건전재정 기초하에서 청소년활동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는……

○**한준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하니깐 여가부 측에서 전체적인 강사비의 중복 지급이나 또 미흡 같은 회계처리 부적절 이유를 드셨는데 이것은 주요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냥 재구조화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리고 청소년……

○**한준호 위원** 4개 사업을 한꺼번에?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게 너무 소규모 자체 지원으로 효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3개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7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사업평가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일회성 행사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폐지하고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연계 예정이다, 이것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래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언제부터 해 왔지요? 1991년이에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매년 해 오던 행사를 왜 지

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재구조화의 일환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동안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서는……

○**한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구조화의 일환이에요, 아니면……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의 달 행사와 연계를 한다는 게 일회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구조화의 일환인 건가요, 사업 삭감을 한 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참여에 대한 활동 기획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한준호 위원** 91년부터 매년 해 온 행사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갑자기 한 건 아니고……

○**한준호 위원** 갑자기지요.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지.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5억 이상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민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단체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한준호 위원** 예.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그건 민간이 조금 자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래서 5억 이상 전액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보면 국가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인가 및 운영,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한준호 위원**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여기에서는 활동경비 지원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해야지…… 청소년

기본법에 이 관련된 설립인가와 운영, 활동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없애 버릴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이기순 지금 저희가 1개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한준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게 지금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장관님, 취임 1주년인 지난 5월 13일에 한 주간지인지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청소년정책 업그레이드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6월 15일에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 이것들을 담은 약속 2호를 발표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한준호 위원 이 예산 삭감과 장관님의 말씀이 너무 엇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고자 했던 목표, 여가부 폐지의 일환 중에서 청소년활동들을 이런 식으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폐지의 일환으로 이렇게 활동예산 삭감 지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지시 사항 누가 내리신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소년국과 상의해서……

○한준호 위원 재구조화, 즉 여가부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청소년 예산을 이렇게 전액 다 삭감을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청소년동아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에서 58%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2%는 거의 학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91년부터 매년 해오던, 청소년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매년 해오던 청소년정책 참여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을 갑자기 다 없애고, 차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재구조화가 목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가부 폐지 목표를 위해서 장관님께서 남아서, 이 활동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청소년활동 활성화나 청소년정책 업그레이드는 말씀으로 담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또 행동은 이렇게 하니까 엇박자가 난다는 거

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활동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예산을……

○한준호 위원 어차피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 주세요. 제가 재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들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약 75%가 여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고 폭력 피해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0~40대 여성이 82%에 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분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로 경제적 적응, 사회 통합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월세 2600만 원을 들여 폭력 피해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서도 이를 비공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 여성은 25.2% 수준으로 4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성호 위원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군인들과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에 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 북한 여성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탓에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성추행을 당해도 성추행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결혼까지 한 탈북민이 혼인취소소송을 낸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탈북을 도와줘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일명 ‘선들러’라는 목사가 자신이 세운 탈북민 대안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는 미국 유학을 보내 주겠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나 등의 말로 오갈 데 없는 미성년자 탈북민들의 약점을 노린 것으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탈북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큼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국군정보사령부 군인 2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성 무슨 폭력 그런 단어 자체도 몰랐다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소외받는 여성들에게 손 내미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위원 여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 대한 사업은 현재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북한이탈 여성들은 일반 이주여성들과는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남성보다 낮은 지위인 사회에서 나고 자란 북한 여성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에 불합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으면서도 생각지도 못 하거나 이를 신고하거나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인지교육은 물론이고 도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함

니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에서 북송되는 탈북여성들에게 제가 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반인륜 범죄를 취하다 보니까 인권이 없고 권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은 이주여성 지원사업 총예산 77억 중 4억 원으로 고작 5%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음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계속해서 몇 번에 걸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질의할 테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단단히 준비하고 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저도 차근차근 제 질의시간에 해당도 하고 답변도 드려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새만금 전도인데요, 저 전도의 파란색 주황색 이런 게 다 매립된 걸로 보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감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새만금은 원래 100%가 농지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100%가 종합 간척지사업으로 출발됐고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와서 새만금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여기를 국제화용지, 산업단지, 관광레저용지 또 철도 도로 항만 고속도로 이런 걸 넣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박근혜정부 때 다시 마스터플랜이 변경되지요. 거기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새만금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신항만은 4선석을 20년까지 완료한다는 거였지요. 국제공항,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54.3km 완료하는 걸로 돼 있고요. 철도, 동서2축도로 당연히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남북2축도로, 농생명용지 조성, 관광레저용지 조성은 2020년까지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갔어야 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잼버리가 파행되고 난 이후에 새만금의 SOC를 위해서 잼버리를 이용했다. 잼밥에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말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상처가 될 겁니다. 출향 전북도민, 500만 도민들한테 저희가 속속들이 전달하고 있는데 엄청난 상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8월 29일 날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 챔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바’ 이렇게 출발하고요. 그 밑에 보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챔버리를 이유로 해서 새만금 SOC를 끝장낸 겁니다. 끝장내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수엑스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역대 국제행사는 국제행사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새만금 챔버리는 국제행사고요,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국제행사가 아닙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는 여수엑스포를 하면서 SOC 10조를 투입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하면서 SOC 11조를 투입했습니다. 다른 엑스포는 다 유치하고 난 이후에 정부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SOC가 투입됐는데 부산엑스포는 유치 전에 이미 13조 7000억의 예타 면제가 가고 있습니다. 원래 35년 개항인데 29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에 4조 6000억이 투입되고요, 부산 급행열차에 2조 6000억이 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권 카르텔인가요? 부산 정치권의 어떤 이권 카르텔인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인지,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만금 SOC가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챔버리 때문에 삭감 검토에 들어갔다는 게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재부 1차·2차·3차 심의 동안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적이 없어요, 1차·2차·3차 심의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8월 20일 날 최종 삭감할 때도 부처 장관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국가재정법과 직권 남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보복으로 새만금 예산 5100억이 삭감됐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삭감한 주역은 아니지만 챔버리 파행이 불러온 과정의 논쟁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 또 출향 500만 도

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전북한테 책임을 씌우는 프레임을 멈춰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아까 허위보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위의 허위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우리 여가부가 허위보고에……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아니요, 그것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 1분 연장 안 됩니까?

○위원장 권인숙 예,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인구특위에도 속해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용 가구 수를 3배 수준으로 늘리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용 가구 수를 3배로 늘리려면 아이돌보미 공급도 그에 따라 3배든 여하튼 많은 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수급을 맞추어야지요.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차관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27년까지 아이돌보미 공급을 한 3배 정도로 늘리겠다고 국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당시 실적을 보니까 양성은 많이 되는데 미입사자나 퇴사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올해 자료를 다시 봤더니 좀 개선은 됐는데요, 양성교육은 총 3197명이나 이수를 했는데 지원센터에 미입사하시는 분 아니면 입사했다가 퇴사하시는 분을 제외하면 순증가한 인원 그러니까 순증가한 아이돌보미는 1082명에 불과합니다. 늘긴 했지만 2027년까지 3배를 늘린다고 하면 대략 한 5만 명 정도는 늘려야 되는데,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은데요. 양성 인원 숫자로 치면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양성교육만 받고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 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양성관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나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470억이 집행됐는데 왜 이렇게 실제 일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증가하지 않는가 이게 궁금한데.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관련 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아이돌보미들이 미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돌보미들께서 받으시는 돌봄수당을 2023년 대비 5%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가부 예산 중에서 가족국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중에 아이돌보미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일차적으로는 처우 문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규 위원 문제 파악하고 계시고 예산 늘어난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육아도우미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당연히 공공보다 민간 육아도우미 비용이 비싸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훨씬 비쌉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최대 6배, 보통 2~6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부모가정을 가정해 봤더니 중위소득일 경우 시간당 서비스 이용금액이 원래 1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본인 부담이 44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문제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신에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2배 정도로 가정을 해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정부가 지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한다면, 만약에 지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바우처로 제공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이 3.5배로 늘어납니다. 정부 지원금이 2배 늘더라도 본인 부담액도 당연히 2배가 늘지요, 왜냐하면 이 용료 자체가 2배니까.

결국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정부가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근에 여가부가 민간자격증 제도 도입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가자격증 제도로 공공과 민간……

○김한규 위원 계획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법안심사 때도 논의했는데……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법안을 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민간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선 채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분이니까, 수요자들이 좋아할 테니까요. 그러면 공공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든 민간으로 가면 내가 자격증도 있으니까 채용도 잘 될 것이고 아무래도 보수도 좋다 보니까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종사자가 줄어들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저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아이돌보미의 숫자를 순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가부 실무자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문제 인식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구도 단순하잖아요. 기본 근무시간을 보장해 줘서 일정소득 유지돼야 되고 실비, 시급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부 예산 올리는 것으로 2027년까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3배 정도 늘리는 목적 달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권인숙 위원장, 신현영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대통령 캠프에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공공과 민간 비용에 격차가 있는 것은 마치 어린이집을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차이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공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거나 민간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디에 가든 다 무상보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청사진은 결국은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거의 같이 맞춰 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이 맞춰 가고 대신 민간은 서비스 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 국가자격증을 하고 등록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 자격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제 걱정은 결국

이게 사실상 민영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예요. 공급, 양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공공성 강화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보육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영화한다고 노조나 이런 데에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의도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실상 민영화가 될까봐에 대한 우려니까 그런 컨선(concern)을 한번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결국 둘의 급여 형평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결국 정부의 예산 확보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요.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영** 해당 내용은 다음에 법안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양의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영 위원** 양의원영입니다.

아까 1차 질의를 할 때 스토킹과 성희롱 건에 대해서 어쨌든 재발방지대책을 6월 달에 내셨다고 이제야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리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양의원영 위원** 분리조치에 대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분리조치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다. 충수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분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결국에는 경징계를 조치한 것

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것을 피해자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되었지만 그것은 법안소위와 그리고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서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여가부에서 피해자 탓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조치하지 않기를, 이번 경험을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을 지원하는 전국에 있는 많은 단체 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양의원영 위원**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32억 원을 감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53억밖에 감축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실질적으로 53억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실제로 권익증진국 전체 사업은 감액하고 증액한 것이 있어서 증진국의 총예산은 53억 감액이 맞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132억 원이나 감축된 게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업의 평균 참여 인원이 7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집단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 연평균 운영 실적도 1만 5000건이 넘는 상황이고,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늘어나고 있어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에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걸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그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법무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에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가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한 언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을 뿐더러 여가부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 관련 말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저희가 여가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여가부가 또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법원행정처래요, 법무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예산편성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법원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다른 보호처분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행정처에 물어봤지요. 저렇게 답이 왔습니다. ‘공문을 수령한 바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여성가족부에 회신한 공문은 없습니다’,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답변을 받았다고 그리고 한쪽은 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부처하고, 두 기관하고 저희가 유선으로 통화해서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원행정처는…… 지금 이게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의 여러 가지, 상담위탁이라는 게 있고 또 보호관찰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차관님, 업무를 이관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셨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구두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무부한테는 비록 구두로 답변을 받은 것이지만 법원행정처는 답변을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왔어요, 회신한 공문이 없다고. 어쨌든 정확한 이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공중에 붕 떠 버린 상태인 거예요.

청소년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 관련한 예산도 삭감을 많이 하셨지요.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합해서 몇 %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11%,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작성한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계약서를 받는 것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

다. 이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전액 삭감하셨어요.

청소년 업무라든지 여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업무 그리고 가해자를 교정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여가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전액 다 삭감을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온 분이 제대로 일을 못 하면서 결국에는 여가부 관련한 핵심 프로그램을 다 삭감하는 형태로 그 사업을 지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대로 저희가 어쨌든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담당하는 법원과 법무부 쪽에 예산을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했는데, 부처간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스토킹이라든가 통합상담소라든가 통합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피해자 보호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쪽을 다 봐 주시고, 우려하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어쨌든 예산 국회가 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텐데요. 원래 여가부의 사업을 폐지시킬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예산은 사실은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입니다. 전액 다시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현영** 양의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개발 완료 예정이었던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가 농생명용지로 바뀐 시점이, 2년의 시간을 더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유치로 하기로 했으면, 유치가 확정이 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2017년 1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농생명용지로 바꾸면서 절차가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2년이 더 늦어진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원래 2020년까지였습니다, 오리지널 계획이.

○최연숙 위원 그래서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잼버리의 지난 문제들을 잘 파악하셔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여가부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청소년 활동 시설인 지방문화원과 문화의집도 점검 대상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은 실질적으로는 문체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매년 문체부에 문화의집과 지방문화원에 대한 점검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문체부는 계속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가부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점검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책임이 계속 전가가 되면서 3년 동안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동안 문체부 협조를 받아서 점검해 왔던 공연장이라든지 영화 상영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조가 불가하다고 문체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점검 결과를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폐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일단 문체부에서 여기는 점검을

못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들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이 시설 모두 문체부 소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청소년활동 시설이 수련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는데요 수련시설은 여가부 담당이고……

○최연숙 위원 아니, 미술관이나 도서관은 문체부 소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요. 문체부 소관이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여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연숙 위원 그래서 지난 25일 복지부 종합감사 당시에 해당 내용을 복지부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님, 아동복지법 소관 부처는 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부하고 신속하게 상의를 하셔서요 점검이 안 된 아동 관련 기관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미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은 했습니다.

○최연숙 위원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신현영 간사, 권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연숙 위원 그리고 소년법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요 재범 가능성과 부모 보호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안가정으로 청소년회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4월 기준으로 8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데요. 개소당 5명 내지 10명의 소년들을 수용하고 있고 3명의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개소당 월 90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최연숙 위원 많이 적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그리고 또 별도의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요, 단순하게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법원 결정에 따른 생활 지원 외에도 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도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뇌발달 부족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세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작년 8월에 청소년회복센터 9곳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전반적 인지발달 지체가 발견이 됐고요. 경계선지능 장애와 지적장애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증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달시기인 청소년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요. 여가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과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우선은 지금 8개 시도의 17개소만 운영 중이어서 이게 모든 17개 광역 시도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연숙 위원 9개 시도에는 반드시 확대가 돼야 되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걸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서적·행동적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연숙 위원 이 실증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요. 이런 애들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숙정 위원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질의에서 잼버리는 파행이 아니냐라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또한 오전 국감 때 말씀하실 때 사무국의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감사원의 감사로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모든 책임이 다 사무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제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사과드린 것은 여성가족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숙정 위원 혹시 조직위원회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사무국이 언제 설립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020년 7월.

○허숙정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허숙정 위원 그럼 보고서에 허위사항이 있다는 것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온 것은 2022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폭염이나 폭우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2021년 12월의 세부운영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허숙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언제부터 허위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인지하셨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2023년 7월 25일을 말씀하시던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허숙정 위원 모르셨던 것 같네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왜냐하면……

○허숙정 위원 사무국의 보고서는 서명하십니까, 아니면 구두보고 받으십니까? 보고받으면 서명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서명이요?

○허숙정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허숙정 위원 확인 서명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숙정 위원 보고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보고는 저희 청소년

챔버리……

○허숙정 위원 사무국이 허위보고했다라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된 거지요.

○허숙정 위원 문서로 보고받으셨는데 현장하고 다르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허숙정 위원 구두보고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장하고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7월 24일 그 얘기도 그때 당시……

○허숙정 위원 지난 1년간 현장 네 번 정도 가셨고요, 나머지 안전점검 가셨다, 회의에 참석하셨다 하셨는데, 뭐 하셨는지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데 허위보고에 굉장히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허위보고,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많이 안 갔기 때문은 아니고요.

○허숙정 위원 장관이 업무를 정말 모르거나 정말 관심이 없어서 허위보고 받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보고를 받았고……

○허숙정 위원 굉장히 분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관 한번 볼까요.

재단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챔버리조직 위원회 정관입니다. 제9장 사무국 및 직원이고요. 제41조(사무국)의 5항에 보면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5명의 조직위원장이 있지요.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허숙정 위원 4명은 안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공동위원장, 위원장 누구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허숙정 위원 김현숙 본인이지요? 장관님 본인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전에는 이정옥 장관이셨고……

○허숙정 위원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장관 하시면서, 챔버리 주관하시면서 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옛날 얘기 하십니까?

위원장이 누구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장은 계속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계속 계셨던 분은……

○허숙정 위원 허위보고 인지하셨을 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본인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전의 정영애 장관님이나 이정옥 장관님이 허위보고를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허숙정 위원 본인이 그러면 허위보고 하라고 지휘 감독하셨습니까? 본인이 위원장 맞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현재 위원장입니다.

○허숙정 위원 예, 맞습니다.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십니다.

본인이 위원장 맞으시지요? 인정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현재 위원장입니다.

○허숙정 위원 조직의 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전체적인 관리 감독이지요.

○허숙정 위원 권한만 누리는 게 조직의 장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저는 그래서……

○허숙정 위원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갖는 게 조직의 장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래서 그 책임에 따라서 저는 사과를 드렸고……

○허숙정 위원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국민이 원하는 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뭐 그렇습니다.

○허숙정 위원 8월 8일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지요, 위기 관리능력을 보여 준 기회다 그리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대내외적으로는 파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인지 부조화,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

○**허숙정 위원** 5명의 공동위원장과 합의해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본인이 위원장이라 말씀도 안 하시고 위원장이냐고 물어보면 공동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 5명 공동위원장과 합의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공동조직위원장은……

○**허숙정 위원** 장관 외 4명의 공동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김윤덕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허숙정 위원** 영국·미국·싱가포르 대원들이 조기 퇴영한 이유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 제가 대답을 다 하지 못하는데 지금……

○**허숙정 위원**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영국·미국·싱가포르 대원들이 조기 퇴영한 이유가 뭐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가장 큰 문제로 저한테 제기했던 것은 위생……

○**허숙정 위원** 네 가지가 있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레드 라인인데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허숙정 위원** 네 가지가 뭘지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생 그다음에 음식, 폭염, 의료……

○**허숙정 위원** 열악한 위생, 음식, 폭염대책, 의료서비스, 기본 중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허숙정 위원** 기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부의 잼버리 파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여가부장관이 위기 관리능력을 보여 준 기회다, 유종의미를 거뒀다고 하는 말,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때 당시가 8월 7일, 8일입니다. 8일은 저희가 전국으로 태풍 때문에 다 분산 배치될 때니까……

○**허숙정 위원** 자신이 한 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잼버리 조직위가 5인 공동위원장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의 규모와 예산이 커질수록 책임은 나눠서 희석이 됐습니다. 그 피해 누구한테 다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글쎄, 저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도움이 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숙정 위원** 고스란히 청소년의 몫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위원님이 저한테……

○**허숙정 위원** 장관님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한테 대답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허숙정 위원** 잼버리 파행된 것 맞지요? 잼버리 파행된 것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지금 기회를 정확히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허숙정 위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잼버리 파행된 것 맞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허숙정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파행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숙정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울의 김미애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신종 성범죄로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공고를 보고 면접을 간 19세 여 재수생이 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3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그리고 성병에 걸려서 그 충격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위장해서 청소년을 유인한 사건이면 여가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실태 파악도 하고 유사사건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또다시 여가부가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된 것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살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좀 소

극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가부에 물어보니까 청소년 피해자 지원 대책 사업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여가부가 검경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와 공조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경의선 키즈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들어 봤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이것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가부키초 토호시네마 옆 거리에 노숙하며 성매매로 돈을 버는 가출청소년을 뜻하는 일본의 토요일 키즈를 흉내 낸 가출청소년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경의선 키즈가 홍대입구역 멘헤라공원이라고 불리는 경의선 책거리광장에 모여 성매매할 남성을 SNS를 통해 구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어른인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가부는 이런 현장에 전문인력을 보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실태 파악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올 7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서 아웃리치나 모니터링을 한 10회 정도 진행은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웃리치 그 일들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마포경찰서 여청과에서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여가부가 할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세태가 왜 생겼는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확대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청소년안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연

합 아웃리치 같은 것을 하고, 제가 국감이 끝나면 11월 중에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 관련 내용을 자료 요구했더니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가출·비행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경의선 키즈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료 요구의 취지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좀 답변…… 저희 안에 여러 과가 있는데 쉽거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취지를 좀 탐구하고 관련 부처와 같이 논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여가부든 우리 국회든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큼니다.

위기청소년 발굴을, 아웃리치도 역시 상담 위주인데 상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청소년들이 범죄피해자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장관님, 이에 대해서 11월부터 현장에 가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경찰, 검찰, 필요하면 법원 소년부까지 포함하고 또 보건복지부도 포함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매우 심각한 문제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정말 심각성을 깨닫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마이크 들고 서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쪽 얘기하는 사업들 잘 들으시고 답변하십시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12억 73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9억 77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가출예방 87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8억 89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어울림마당 15억 12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활동 운영 지원단 지원 1억 4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활동 지원 경상경비 70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2억 9400만 원 전액 삭감, 스카우트활동 지원 2억 71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세계잡버리 지원 95억 13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운영비 등 경상경비 1억 2700만 원 전액 삭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12억 17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15억 39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6억 3500 전액 삭감,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5억 19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20억 13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1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16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내일이룸학교 31억 1300만 원 전액 삭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23억 2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13억 1800만 원 전액 삭감,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예.

○문정복 위원 이것 청소년정책관님 이해하고 다 삭감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문정복 위원 대한민국에 청소년 없지요? 청소년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그 예산이 좀 없더라도 청소년정책은 계속할 예정……

○문정복 위원 어떻게 있던 예산을 없애도 그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판단의 근거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아까 장관님

이나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활동은 우리가 주는 예산 외에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있고……

○문정복 위원 그래서요, 국비 없어도 지자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국가가 안 하면 지자체는 할 거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국가뿐만 아니고 지자체도 같이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문정복 위원 국가가 하지 않는데 나서서 할 지방정부가 얼마나 된다고, 확인하고 하신 겁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하지 않을 건데 당신들은 예산편성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지자체에 알려 줘서 그런 걸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다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예산편성 안 했으니 지자체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하실 요량이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정복 위원 청소년 업무 담당하는 정책관 맞으십니까?

설사 장관이 안 된다고 차관이 안 된다고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해도 정책관께서는 바득바득 우기셨어야지요. 우겼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의 제기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그 안에 사업 중에는……

○문정복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다 내부 조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반대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내부 조정을……

○문정복 위원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일부는……

○문정복 위원 반대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일부는……

○문정복 위원 반대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기재부도……

○문정복 위원 반대의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답변을 하시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일부는 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좀……

○문정복 위원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것 다 자른 겁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문정복 위원 다시 하겠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정책관님,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 다 살려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여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지방을 돌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이 다 매칭펀드잖아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줄어들면 거기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칭펀드적 성격이 있어서 대구 갔었을 때도 그렇고 인천에서도 그렇고 다들 너무 난감해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물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줄은 아는데요. 사실……

○위원장 권인숙 전액 삭감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면 거기서도 사실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인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 예산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관된 것도 있고……

○위원장 권인숙 아니,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의 핵심은 매칭펀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지자체로 그걸 돌리셨는데 지자체들에서는 다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자체가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다들 굉장히 돈이 없고 그리고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돈들이라는 것도 잘 마련되는 것들이 아닌 상황인데 국비로 오는 것들이 이렇게 확 줄어들면 그 매칭펀드도 같이 줄어들면서 지원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하고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묻고 계신데 지금 매칭펀드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시면서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것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권인숙 고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지금 선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여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자들 지원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도 보면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다 직접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데 최소한의 요건과 관련된 그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삭감, 삭감을 해 버리면 지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내일이룸학교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좀 업무방식을, 밖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책관님,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가지 사업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내용을 좀 세심하게……

○위원장 권인숙 그리고 제가 여성폭력 관련한 것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칭펀드로 국비와 지자체의 예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가부의 선택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그래서 정책 활동 파트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인프라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런 것을 상호 연계해서 청소년활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있어야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한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말씀해 주시면 곤란하지요.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일단은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아니, 그것은 아니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의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여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제가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 권인숙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활동이 완전히 다 없어진 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양의원영 위원 예산이 없는데 활동을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기존의 인프라도 있고요, 위원님.

○위원장 권인숙 하여튼 관련된 대안을 보고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영 위원 오늘 여가부 답변이 참으로 고구마 었힌 듯이 답답한 느낌입니다. 여가부의 무능한 장관 실드 치기 그리고 정부-여당의 유착이도를 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까 황윤정 기조실장 관련해서 청문회 사진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행 청문회 당시에 기조실장이 후보자에게 ‘씻’ 하고 제스처를 하셨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 가상화폐 스템잇 코인 보유 여부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묻고 있었고요.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발언을 제지하는 기조실장의 모습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발언하면 문제이니 함묵해라라는 메시지로 모두 이해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아까 화장실 추격전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장관도 얘기하고 여당도 공격을 했지요. 적반하장인데요. 고백하자면 저는 잼버리 현안질의 파행과 화장실 추격전 사건 발생 후에 간사로서 속상한 마음에 여가위 그리고 여가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조민경 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해프닝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중히 문자를 보냈지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결국에는 김현숙 장관한테 보고되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를 도구로 해서 민주당에 공격의 칼과 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속상합니다.

여가부가 정부부처로서 중심을 잡고 여성정책 등 행정부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에 오늘 무능하다, 부끄럽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가부 부처가 부처 폐지를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 부끄럽지 않게, 장관 기조실장 대변인 이런 책임자들이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여가부 기능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 처신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잼버리 관련한 지적도 하나 하겠습니다.

8월 2일 잼버리 개영식 날입니다. 김현숙 장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당시 개회식이었는데요, 고열과 온열질환으로 참가자들이 지쳐 가지고 쓰러지고 개영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방청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현장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서 언론의 비판이 빗발쳤었지요.

그런데 장관님은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수습하기도 바빴을 텐데 밥 먹을 시간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5km 떨어진 식당에서 15명과 식사를 했고요. 다른 끼니는 현장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식당에서 또 식사를 하십니다. 정말 의아한 일이지요. 정상적인 대응이라면 밥 먹기에 시간도 없었을 거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상황인데 장관은 어디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 저희 의원실에 추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지금 말씀……

○신현영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전청조·남현희 이슈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신현영 위원 체육계 성범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코치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코치가 수강생 2명한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1명은 1년 넘게 강제추행 그리고 다른 학생은 7개월 간 성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보다 남 씨와 전 씨가 미리 해당 의혹을 인지했는데 묵인한 것 아니냐라는 녹음파일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를 보면 체육지도자는 성폭력 피해 의심이 있을 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이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요?

○신현영 위원 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당연히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지요.

○신현영 위원 그렇지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신현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개소 이후의 자료를 봤더니만 4년간 성폭력·성희롱 신고가 88건이에요. 폐쇄적인 체육계의 조직문화를 보면 은폐된 폭력, 성폭력이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문체부에만, 스포츠윤리센터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잘 들여다보고 스포츠계에 있는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학폭 피해자로 알려진 표예림 씨 사건 아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들어 봤습니다.

○신현영 위원 이분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이랑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셨지요.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 어떤 게 문제라고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신현영 위원 제가 질의 다 하고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스토킹방지법에서 직접적인 피해로만 이 문제를 규정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또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여가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토킹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스토킹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범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됐을 때 이것이 범죄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인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과 스토킹 범죄는 좀 다른데요, 그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니까 직접피해 말고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간접피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사이버 불링이나 유튜브에서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법안소위가 좀 열려서 저는 저희 상임위의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리해 주시지요.

○신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경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쓰시라고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준 성금을 횡령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판결의 요지는 첫째, 정대협 계좌로 보관돼야 할 후원금 가운데 8000만 원을 갈빗집 가고 마사지숍, 애견호텔에 가는 데 쓰고 딸한테 용돈 송금하고 윤미향 의원 개인 세금 납부하는 데 썼기에 업무상 횡령이라는 겁니다.

둘째,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은 국가보조금으로 충분히 치를 수 있었는데도 윤미향 의원이 돈이 부족하다며 1억 3000만 원을 모금하고 그 기부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기에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셋째, 윤미향 의원은 국민 혈세인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 원을 불법 수령한 것이 인정돼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세 번째 범죄사실, 즉 윤미향 의원이 여가부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보호시설의 인건비로 쓴다면서 국고보조금을 타 내서 이를 직원들 계좌에 인건비인 것처럼 입금한 뒤에 기부 명목으로 다시 상납을 받았습니다. 이 건 사기꾼들이 흔히 저지르는 카드깡 범죄를 뛰어넘는 윤미향표 기부금깡 범죄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 판결문에 보면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기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점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름을 팔아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장관님, 9월 20일에 윤미향 의원 보조금법 위반 유죄 선고가 났는데 이후에 여가부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즉각적으로 저희 권익국에 지시를 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통지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정하기로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가부로부터 받을 때는 사전통지만 보낸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정의연하고 윤미향 의원이 횡령, 사기 저지를 때 우리 국민들한테 사전통보하고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통보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처분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국가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둘째 향후 최대 5년간 보조사업 수행에서 정의연을 배제하고, 셋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집행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윤미향 의원이 지난 9월 1일에 우리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한 친북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간또대진제 행사에 참석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정경희 위원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제 발로 가서 앉아 있다니 윤미향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 남편 김삼석은 징역 2년, 시누이 김은주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고 시누이의 남편 최기영 역시 간첩 사건인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인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미향과 남편 김삼석은 2016년 중국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서 월북을 회유한 의혹이 있습니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는 2018년에 윤미향 부부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및 민변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접근해서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고 탈북은 죄라면서 ‘수령님’ ‘장군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쓰다가 하면 북한의 혁명가요까지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우리 국민들의 성금과 국가보조금이 윤미향과 그 일당들이 월북을 회유하는 회유금으로 남용되는 등 중북 활동금으로 쓰이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 주변에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친북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장관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윤미향 의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정의연이 불법 수령한 국가보조금 및 이자반환명령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지금 계신 위원님들 모두 3차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3차 질의는 간사 위원들과 협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원택 위원 예.

방금 윤미향 의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윤미향 의원님이, 아까 여기에 일부 사실도 있을 거고 또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한 조치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윤미향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참고인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어떻게 조치할지 확인을 해 보고 다음 회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 참고인으로 부르지요.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물어보지요.

○조은희 위원 참고인으로 불러 주세요. 찬성합니다.

○정경희 위원 다 법원 판결 내용이니깐……

○위원장 권인숙 그리고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예.

○신현영 위원 아까 김운덕 의원님에 대해서도 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관계 정정할 것도 있거든요. 해외출장 간 것은 조직위원장 때 간 게 아니라 잼버리, 본인이 전북 스카우트 연맹 담당자일 때 부안군에서 초청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비용으로 간 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하면서……

○조은희 위원 부안군에서 받아서 갔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직위원장이 아니었다고요.

○조은희 위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면 ‘조직위원장’ 하고서는 해외 내용들이 나와서 위원장일 때 간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정정하고 싶고요.

그래서 간사 협의를 통해서 다음 회의 때 참고인을 부르지 아니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한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참고인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것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질의 질의시간 3분으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최승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4만~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에게는 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 15조 3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해당 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 과정입니다. 고교 중단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고등학생 비율이 2021년에 45.1%에서 2022년 47.1%, 학업중단 청소년 수도 4만 2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승재 위원 그러면 학업중단 청소년, 고등학생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이 다시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입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국 22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연계되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울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따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여가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승재 위원 보니까 내용이 의료 지원, 수사·법률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및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바라기센터는 의료기관에 설치되고요. 각 지자체, 경찰 등과 연계해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39만 8980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언론보도 및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인력 부족과 운영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도록 법이 돼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야간진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나와 있고요. 더구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의료진과 종사자가 직접 경찰-법원-피해자 연계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담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특히 운영기관—의료기관 얘기하는 것이지요—입장에서는 여가부와 지자체

가 지원하는 인건비가 너무 낮고 그래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일들 이런 부분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바라기센터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처음 말씀하신 고교과정 중단 학생들에 대한 정보 연계는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 지금 여가부 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법안소위에서 김한규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것들이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정보가 자동 연계되니까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최승재 위원 자동으로 연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리고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구 달서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갔는데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도 많고요, 취미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라든가 새로운 자기 직업을 찾는 아이들도 많고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보호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해센은 제가 서울대병원 해센도 기본 적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충남에 올해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하나 설치를 하는데 해센은 병원에 다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 그것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세요. 서울대병원도 센터장님 만나 보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장님도 만나 봤지만, 그게 일종의 봉사거든요. 사회

봉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병원 인센티브에, 특히 국립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복지부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고 지원 방안도 만들고 봉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 잡고 아니면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복지부랑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복지부, 교육부랑 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장관,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 여가부장관 인사는 줄참사였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대통령 바라기만 하다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망쳤고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뒷배 의혹, 주식 파킹, 황색언론,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만 일으키다 청문회 도중에 사라져서 ‘김행랑’ ‘줄행랑’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습니다.

장관은 줄곧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다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여가부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가부 수장으로서 리더십도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데 여가부를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장관,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서 20년 넘게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역사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다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년 정부장관실을 거쳐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001년 여성 차별과 폭력 철폐를 목표로 여성부를 신설했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복지부 가족정책을 이관하여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역사적이고 투쟁적인 과정의 결과가 바로 현재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보다 성평등이 강화된 영국과 캐나다 스웨덴은 성평등국, 프랑스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독일은 노인·여성·청소년부, 노르웨이는 문화·평등부를 통해서 종합적인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다른 나라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여가부장관이 나서서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추진하는 사이에 여가부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큼니다.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꼴찌였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가정폭력, 스토킹폭력, 디지털폭력 등 각종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서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흉악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내년 예산에서 여성폭력 방지 예산을 다 깎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가부 예산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27.5%나 삭감해 버렸습니다. 성착취물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예 예산 자체를 100% 삭감해 버렸습니다.

여가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한 여성가족부 없애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지난해 10월에 만들고 올해 2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불발된 정부조직법 안에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비록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개별 부처, 독립된 부처가 아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지만 예산도 33조 정도 되고 독일의 가족부와 유사한 형태로 여성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지요. 우리나라 모든 인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다 담아낼 수 있어서……

제가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물론 매우 부족하지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500만 명이 넘는 여성·노인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틀로 담아 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오늘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부모·다문화가정이나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나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한 예산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의 한정 때문에 효율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장관님,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같은 여성폭력 급증하고 있는 것 문제 의식 갖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용혜인 위원 지난 한 해 가정폭력이 22만 5000건 신고가 됐고요 성폭력이 4만 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합해서 한 10만 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삭감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입니다. 노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여성폭력이 이렇게 더 심화되고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들 의료비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쉼터·주거 지원 예산 이런 것 왜 삭감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말씀을 저희가 좀 상세히, 예산소위가 있으면 상세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다녀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 같은 데 가면 요새는 그렇게 모여 계시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어디 시설에 여러 분이 같이 계시면 핸드폰도 쓰실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원룸 형태로 독립된 주거공간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호시설 같은 게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이게 다 삭감됐다고 하지만 저희

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용혜인 위원 장관님, 그러면 전환 대책들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은 적절한가요?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는 대규모의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재부가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라거나 예산을 줄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예산만큼은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삭감하라는 의견 안 냈는데도 여성가족부가 스스로 삭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받은 사례들인데요,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쉼터 문 부수고 종사자들 위협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좀 더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설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겠다는 문제의식은 좋지만 어쨌든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쉼터들이 피해자들의 어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피해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더 폭넓게 보장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과 종사자 숫자를 그냥 줄여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 자체를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 임명권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그 직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여가부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기재부하고 대통령하고 직을 걸고 싸워서라도 피해자 지원 예산만큼은 지켜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직을 걸고라도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상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원상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과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장관님 또 여가부 공직자 여러분,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챔버리는 지나갔고 앞으로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를 용기를 내서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김에 지금 여야 위원들 간에 청소년 지원 예산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저도 솔직히 동조합니다.

여가부의 현재 위치와 이를테면 부처 간 파워에 있어서 지금 많이 의기소침해 계실 건데 꼭 필요한 부분은 여가부가 여가위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좀 살리는 노력을 같이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가부의 보조금이 일부 부정수급돼서 단체들의 ATM기로 전락하는 것은 저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의 누수가 적을수록 지금 지적된 예산,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쓰이거든요.

지난 10월 17일에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2018년부터 4년간 문재인 정부 보조금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가 1조 8000억입니다. 여가부 전체 예산을 웃도는 건데요. 이 중에서 부정수급하고, 여가부가 집행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수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이 미국 유학 중인 아들 내외를 만나러 갔는데 9개월 동안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꿀꺽한 거거든요.

보면 아동·청소년 성피해 막기 위한 사업도 꿀꺽, 전부 허위 서류입니다. 가폭 피해 막기 위한 사업도 꿀꺽 그다음에 이주여성지원센터 사업도 허위 서류 꾸며서 육천몇백만 원 꿀꺽, 이런 꿀꺽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런 관리 감독에서 누수가 없는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여야 위원들이 말하는 예산에 좀 보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물론입니다. 사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은 굉장히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회계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을 잘 못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하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사업 그다음에 동굴레청소년지원시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런 데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국민의 굉장히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잘못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까 윤미향 의원 보조금 환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유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셔서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기조와 원칙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같이 좀 노력해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질의에 앞서 청소년들 정책은 업그레이드하겠다는데 청소년 예산은 다 깎아 내고……

지금 장관께서도 이미 사임을 표명하신 상태에서 후임 장관 임명이 무산되니까 지금 현재 국감장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오셨을 때 여가부 폐지가 목적이었고 전체적인 예산 삭감이 그런 일환으로 비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있는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차관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사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깎이고

있는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 예산 23억 전액 삭감됐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한준호 위원 삭감 올렸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한준호 위원 상담사 중에서 여가부 파견 서른네 분,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래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한준호 위원 뭐를 논의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다른 곳에 파견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준호 위원 계약직이었는데 2년 넘게 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실태 파악 제대로 안 돼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하고 있지요? 왜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서른네 분 중에서……

○한준호 위원 계약직인 경우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한준호 위원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지금 현재……

○한준호 위원 34명 계약 2년이 넘은 사람들에 대해 무기계약, 다 갱신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이 종료되신 분도 있고요.

○한준호 위원 방금 ‘예’라고 대답하셔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원 소속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저희가 다르게……

○한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서른네 분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2년 넘게 일하면 기간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태 파악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은 삭감하고 이분들 일자리는 잃게 생겼는데. 여가부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을 파견 형태로 보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 쪽에서 오신 분들, 이쪽에 가

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시를 누구한테 받고 일을 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상담복지센터 원 소속 기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원 소속이 어디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각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파견 나간 상담사들입니다. 소속은 지역 상담복지센터입니다.

○한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가부의 답변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것도 파견법 위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답변 온 것을 보니까요 이러한 답변들을 해 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그런데. 파견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지난 15일에 예산 삭감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가 담당하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여가부의 117센터 사업 참여를 경찰청에서 설치한 긴급전화에 대한 인력 파견 사업이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사업 불참을 결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가부 스스로 상담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에 파견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은 보고서 채택 전까지 답을 꼭 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 서른네 분에 대해서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 대해서 파견법 위반 시비가 있는데 파견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실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위원님, 저희가 노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견법 위반……

○한준호 위원 그것 다 보내 주시고요, 저희도 내용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한준호 위원 명확하게 받으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한준호 위원 관련 내용들 다 보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리고 서른네 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성호 위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하는 사업 중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내역으로 북한이탈 여성 폭력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성호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폭력피해 북한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 및 운영 절차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실제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실무에 대한 매뉴얼, 가이드 등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지금 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 또 하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열 곳의 센터 위치가 북한이탈 여성의 거주지 현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치 지역 중 광주광역시에는 415명의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1113명, 경북 909명, 강원 691명 등 이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 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은 광주광역시보다 약 3배 차이가 나는데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탈 여성 규모를 고려해서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더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애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인건

비나 사업비 같은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보고, 또 통일부랑 연계해서 일을 해야 돼서 통일부하고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 청주 충주 음성, 굉장히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료 상담원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교부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지정하고 동료 상담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1366 여성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담 수요 발생 시 2인 1조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도 2023년부터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했으나 각 센터별 1명씩만 배정되어 있어 상담원 혼자서 방문할 수밖에 없어 상담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비 부족으로 출장비가 없어 찾아가는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북한이탈 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지금은 그냥 진행하고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성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동료 상담원을 늘려 이러한 북한이탈 여성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가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지 통일부랑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아까 챔버리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의 허위보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이 허위보고를 인식하기까지 1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제가 현장에 가 보시라고 그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여가부장관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가부의 역할이고? 또 5개 조직위원장 중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실세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해 주고 개선하고 이런 것이 1년 6개월간 되지 않은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잼버리 준비 상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수평적으로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의 한 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정부 합동점검도 그렇고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도 충돌되고, 그 문서만 제대로 봤으면 금방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찾아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잼버리 사태를 자꾸 부지에 문제가 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 부지를 공모할 때 3대 조건이 있습니다. 250만 평이 있어야 되고 상수원이 공급돼야 되고 프로그램 지원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런 부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만금 부지에 이 부지 말고도 다른 부지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새만금을 한 번도 안 오셨거나 잘 모릅니다.

아까 그 부지가 조감도상 매립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지가 250만 평에다가 불안담이 있어서 상수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잼버리가 1차선이어서 진입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4차선 진입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겁니다, 이 부지가.

그래서 2015년 9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임원들이 와서 실사를 한 겁니다. 또 2016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와서 실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부지 판결해서 세계연맹의 공모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 부지가 갯벌이라고 주장하는데 해창

갯벌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지가 해창갯벌 부지입니다. 이미 2006년부터 육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막이 공사하면서 육지화가 돼서 이렇게 땅이 다 드러나 있고 17년도에는 조사료를 채배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2019년도에 잼버리 개최 부지라고 해서 나무까지 자른 장소인데 이게 그 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갯벌이다, 진흙 갯벌이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권인숙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 아까 일본 잼버리…… 사진 하나만 보여 주시겠어요.

딱 1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리를 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해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그러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님, 올해 기재부에서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진흥원이 최하 등급 E 등급 받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서의 윤리경영 부분을 보니까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등의 사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채용 문제로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요? 이 보고서에 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가 틀렸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채용에 문제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이미 상임이사 자리에 청소년계에서 일한 전력도 없고 본인을 판금 분야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분이 뜬금없이 진흥원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상임이사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왜 이렇게 임명하셨을까? 왜냐하면 법에 보면 이사장님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경력과 자격,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좀 무관해 보이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담당 기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1일 날 거기에 취임을 했는데, 왔더니 이미 정책이사께서는 공공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면접전형 그리고 인사 검증을 통과해 가지고 제가 취임 후에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수로 올라온 게 아니라 복수로 왔는데 그중에서 왜 이분을 선정하셨나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저희가 이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사하고……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분이 대행을 다 하고 계신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그때 취임하실 때는 활동이사가 있었는데 활동이사님은……

○김한규 위원 아니, 이분이 청소년 관련 경력이 없는데 왜 임명하셨냐고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저희 담당하는 업무가……

○김한규 위원 제 3분 중에 30초 이상을 의미 없는 답변으로 지금 잡아먹고 계십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 재무·인사·경영관리에 대한 업무가 정책기획이사의 업무입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업무 때문에 한 명밖에 지금 안 남아 계시는 이사를, 청소년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언론에 나온 대로 의혹이 있고 국민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전혀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 그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지금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전임 소장님이 8월 13일 퇴임

이후에 아직도 임명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임명 못 하는데 원인이 됩니까? 지원이 안 되는 원인이 됩니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우선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연구적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가 좀 깊고 학문적 분야가 깊은 분야를 요하고 있는 문제와 함께 실은 위안부문제연구소장이 저희 진흥원 안에서는 1급의 본부장급인데요, 그러다 보니 행정 역량을 함께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의 지원이 좀 쉽지 않아서 8월 13일 계약 종료 이후에 저희가 1차 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0명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곧 다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 특수성이 있더라도 예전에는 다 임명이 됐던 자리지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혹시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임명을 안 한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적절한 분을 찾아 주셔야 되고, 과거에는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임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과로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임명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말씀 잘 새겨듣고 원만하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3차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출행랑친 김행 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때 여기 재직하던 당시에 본인이 원장으로 있었는데 또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해서 양평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인사청문회 때 문제가 돼서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요. 그런데 김행 씨는 그렇게 여가부를 떠났고 남아 있는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뭉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안 돼서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원장이 설립한 회사와 그 원장이 운영하는 기관이 수의계약을 맺는 게 적절한 건가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양의원영 위원 본인이 원장인데 본인이 설립한 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원장님일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흔한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아니요, 제가 자료를 검토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한 관계 법령에서는 5000만 원 이하고 양평원에서는……

○양의원영 위원 예, 그것은 다 맞췄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위법한지 여쭙본 게 아니고 적절한 행동이나 여쭙본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애초에 6월 9일에 양평원이…… 4000만 원짜리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이에요. 사이트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기능만 개선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짜리를 올렸는데 개찰을 하기 전에 불과 7시간을 앞두고 그날 아침에 돌연 공고를 취소했어요.

그건 양평원 스스로의 요청 때문이고 그러고 나서 두 달 있다가 그걸 절반으로 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한도 2000만 원 밑으로 해서 그걸 원장이 자기가 설립한 회사랑 수의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제가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계약 당사자도 이미 퇴직을 한 상태라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양의원영 위원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위법하다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면 그렇게 하실 거냐고 여쭙보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당시 김행 원장은 2014년 2월 달에 취임을 해서 2015년 11월 달에 정치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직하기 전에 뭔가 이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챙긴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월 달에 사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8월 달에 수의계약을 하고 떠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된 걸로는 보고받았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절차에 따라서 위법한 사항이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다분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리는데 하나는 어떤 기능 개선이 있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요. 40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깎이게 된 경위 그리고 기능 개선 작업한 것 그리고 이 계약 과정을 어쨌든 들여다봐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고발 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명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최연숙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가부에서는 불법취업 성범죄자 점검을 연 1회

수행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약 34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아동·청소년시설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경우가 연평균 약 300건이 됩니다. 여가부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도 매년 약 10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서 취업한 경우 그리고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지만 그 사실을 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알리지 않아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연 1회 점검만으로는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인 성범죄 경력 미조회 과태료를 좀 더 강하게 부과를 하고요, 제대로 징수되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점검 기간을 지금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서 연 2회 할 수 있는, 확대를 해야 되는 법안을 제가 발의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다음에 아청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이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까지하도록 하는 입법도 의원님들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성범죄자들 주소지 파악이 정말 중요한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이 291건 있었는데 그중에 주거지 반경 1km 이내의 재범이 55%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상 등록대상 성범죄자들 중에 주소지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올해 9월 기준 146명이고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11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지를 허위정보로 제출해서 입건된 인원이 19~23년 연평균 5020명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

도록 하는데 이 처벌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현재 성범죄자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큰 치안 공백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가부에 성범죄자 알리미 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최연숙 위원 이것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나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이 부분을 허위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숙정 위원 국감 기간에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운영된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여가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혹시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처의 수 혹은 관련 기관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신고센터 수요?

○허숙정 위원 신고센터 수가 아니고요 이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기관 혹은 부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교육부와 경찰청입니다.

○허숙정 위원 그 이하에는 광역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기초지자체도 있을 겁니다.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했는지 이번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교육부·경찰청에 저희가 아마 그 내용은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협의가 돼서 교육부나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겠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숙정 위원** 방법을 여쭙본 거고요.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셨는지 혹은 답신을 받았는지 협의를 위한 회의를 하셨는지 여쭙보는 겁니다.

여가부 공문이 지금 나와 있나요, 파워포인트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사전 협의와 유선전화했다고 합니다.

○**허숙정 위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답변 나중에 받겠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산 삭감은 저희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가부가……

○**허숙정 위원** 혹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를 참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신 겁니까? 법적 근거만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숙정 위원**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인력과건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서 타당성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가 아니라 충분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도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허숙정 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충분성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직접 수혜자의 범위가 다양하나 간접 수혜자 범위에 다양한 배경이나 환경의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조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읽으셨습니까? 안 읽어 보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사업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운영이 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유, 근거 확실합니까? 단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 삭감 근거 분명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예산……

○**허숙정 위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데, 혹시 4차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권인숙** 예.

○**허숙정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세요.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울의 김미애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가부 내년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가부 입장을 보니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했고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게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 1개소 신규 설치하는 데 5.3억 원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이 10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되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 아동 자립지원금 5억 원이 신설된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부분을 보면, 제가 변호사 시절에 현장에서 대부분 관여했던 겁니다. 가폭 피해자, 성폭 피해자,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는 아까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곳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현재 운영 상황을 보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대부분이 법원 소년부에서 센터장에게 국선보조인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그것을 또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은 들으셨는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폭·스토킹 방지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입소율 저조 등에 따른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 이런 감액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1명이 있어도 지원은 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인력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예산심사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살릴 것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까 위원님이 열거해주신 것처럼 조금 더 트렌디하게 여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좀 증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활동가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제가 며칠 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폭상담소에서 통합상담소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소위 과정에서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미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지금 장관께서 챔버리 초기대응 부족했다 하셨지만 어찌 됐건 12일 중에 8일밖에 못 하고 또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342개소로 흩어진 게 아니라, 물론 세계연맹 측의 요청도 있었습시다만 대학 기숙사로 뿔뿔이 흩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감과 반성, 사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9월 13일 날 김행 장관후보자가 내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사의 표명을 언제쯤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특정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기억하기는 어려우시고요?

대통령께 하셨나요, 국무총리께 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제가 비서실장님한테 했다고 아까 다른……

○장경태 위원 비서실장님.

그러면 본인이 먼저 사의 표명하시고, 대통령실로부터 먼저 경질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하여튼 여가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했고 일련의 어떤 그런 것의 맥락상의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경질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장관께서 먼저 사의 표명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 챔버리 사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파행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혹은 대통령실에서의 책임감 있는 목소리가 먼저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장관께서 사의 표명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찌 됐건 일단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글썄, 뭐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대통령실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뭐 있었겠지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셨겠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이 온 건지 아니면 연락을 하신 건지가 저는 궁금해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일일이 말씀드리는 게……

○장경태 위원 엄청 중요하지요. 국무위원에 대한 또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교체인데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개진받아서 하는 것과 대통령실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이 챔버리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도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신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다음 주 대통령실 운영위 국감에서도 저는 질문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하여튼 저는 책임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지금 계속 말을 돌리시니까. 그냥,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니, 제가 날짜를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장경태 위원 날짜는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의 표명을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챔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좀 저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저는 제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셨을 거라고 당연히 제가 믿고 질문드리는데 먼저 연락이 왔느냐, 아니면 먼저 말씀하셨느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주 단순한, 심플한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장경태 위원 제가 날짜를 지금 질문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을 받으셨는지 보고를 하신 건지만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권인숙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현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다들 청소년 그리고 여성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는 국회 예산소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현영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당연히 경청하고, 다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원칙은 있으니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신현영 위원 예산 삭감이 여가부 의지인가요, 아니면 기재부 의지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청소년국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검토했습니다.

○신현영 위원 내부에서 검토해서 먼저 올렸나? 그래서 아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논의를 했지요. 기재부하고도 당연히 논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안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여가부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장관님, 아까 현장 행보 많이 하셨다 그러서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2년, 23년 연달아서 청소년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내년 진주에서 청소년박람회 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 달라라는 발언도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24년도 예산에 청소년박람회 예산 지원이 전부, 현장 지원 예산이 소멸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고…… 현장의 당사자들은 배신감을 상당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또 내일이름학교에 대한 보도자료도 금년 2월에 뿌리셨어요. 이기순 차관도 이렇게 발언했네요. ‘내일이름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31억 원이 전부 삭감이 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요. 울산지방경찰청 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일하는, 12년째 지속된 이 사업의 여가부 소속 상담사 33명이 별안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주경찰청의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도 여가부 소속 상담사가 여가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했는데 사업종료 통보를 받아서 너무나 억울하다, 예산 재배정으로 117센터에 근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차관님, 이런 민의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폭력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셨어요. 작년에 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24년도 예산에 보면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지원 1.9억 원 삭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8억 원 삭감. 가정폭력상담소, 성인권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비 등 현장을 다니시면서 어디를 삭감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담당자들과 상담사들 그리고 단체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지금 입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회랑 같이 논의해서 되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원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현장의 상처받은 분들이 조금은 희망을 얻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정경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대회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장관님, 어느 건물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글로벌 리더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경희 위원 예, 맞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입니다.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건물이었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핑계로 호화여행 다니느라고 손놓고 있던 나머지 작년 6월에서야 겨우 착공을 시작해서 잼버리가 끝난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새만금개발청, 잼버리추진단, 한국스카우트연맹이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 7박 8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해외 잼버리 사례를 탐방한다면서 스위스 융프라우를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잼버리를 개최한 적이 없는 나라

입니다. 그런데 출장계획서에는 잼버리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적어 났어요. 이 여행에 세금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들먹이면서 호화스러운 해외여행 다니느라 건립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건물 짓는 데 450억이 들어갔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잼버리대회 전에 준공을 못 해서 대회 기간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임시로 사용했고요. 이 건물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건물 필수유지인력 18명이 필요해서 매년 11억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골칫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잼버리를 배운다면서 공무원들이 지난 8년간 99건의 해외여행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전라북도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5건 다녀왔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면 기가 찹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잼버리 지역축제 발전을 모색한다면서 몽마르뜨 언덕의 와인축제를 즐겼고 한 번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중국에 가서 크루즈투어를 했습니다. 새만금 유치를 홍보한다며 런던에 가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잼버리 개최국 일본과 동질감을 형성한다는 핑계로 일본의 사케박물관과 양조장을 방문하는 등 국민 혈세로 출장 아닌 관광을 다닌 겁니다.

심지어 잼버리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출장에서 부안군 공무원들은 런던 근교의 휴양도시 브라이턴까지 가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경기 직접 관람하는 거하고 크루즈 투어가는 게 잼버리대회 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득실댄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잼버리 핑계 대고 호화여행 다니면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축낸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관님, 지금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 중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정경희 위원 잼버리를 핑계로 해외 관광을 다니다시피 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경희 위원 이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저희는 감사원에서 챔버리 추진 실태만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닙니다. 모든 기관과 실제로 여러 가지 사용한 운영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감사를 해서 다시는 이렇게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일이 없도록 처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어서 위원님들의 4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약간 부정이 있었던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고 통합상담소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5년 동안 5건에 불과했고요. 그 5건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 삭감한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의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저조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자체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실적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존의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들,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다변화된 상담에 특화해서 피해자들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지원 예산을 확충해서 더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장

관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성폭력 대응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합상담소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 상담소들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겠다는 안을 여가부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상담소는 감축되고 종사자 인력이 줄어드는 게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5개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상담소는 감축되고 종사자 인력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5개 사라지고 종사자 58명 구조조정하고 예산은 줄어드는데 도대체 어디가 피해자 지원 강화이고 확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일선의 피해 지원 현장이랑 소통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통합상담소 전환과 인력 구조조정이 피해자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고 평가를 내 부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것은 아마 권익증진 국장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있습니까? 어디 계시지요? 나와 주세요.

장관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답변이 좀 어려우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무래도 권익국에서 처음에 예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위원 답답합니다.

일선의 현장이랑 소통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에 또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내년도 지침에 반영하려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산편성 이후에나 들어 보셨다는 얘기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장 단체랑 조율도 없고 책임 있는 로드맵도 없습니다. 제가 소통하기로 그야말로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실적에 따라 구조조정하면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아닌 실적 늘리기에만 몰두할 것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큰 우려가 됨,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담자들이

갑작스럽게 지지체계를 잃게 되는 것, 피해 지원의 단절 우려됨,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조차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고가 없는 피해 지원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은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고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본래 목적은 어떤 기관이 더 많은 피해 지원을 했는지 가지고 실적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단 1명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의 수많은 상담사들, 종사자들이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다 무시되고 피해 지원 체계를 흔드는 예산안을 갖고 왔고요.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난도질한 피해자 예산을 원상복구하든가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5대 폭력 근절은 정부의 안중에 없었다라고 인정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답이 필요하신가요?

○용혜인 위원 예,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하시든가 아니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구조화한 것은 분명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소위에서 위원님들과 다양한 토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원칙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탈북민 관련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함께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신매매방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단체의 인신매매 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8조는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잘 아시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여성들은 중국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당합니다. 특히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짐승처럼 연령, 혼인 유무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 팔려 다닙니다.

본 위원은 민간단체에 있으면서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보았고 또 이러한 분들을 500여 명 구출해서 대한민국으로 모셔와 자유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가위에 오면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바로 탈북민 인신매매 실태조사와 지원제도 정립이었습니다.

장관님, 현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현재로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성호 위원 포함시켜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계획에 당연히 탈북민 여성 인신매매 실태조사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탈북민을 잘 아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피해의 깊이라든가 환경에 있어서 그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자격요건을 갖춘 탈북민들을 일선에 배치하여 인신매매 실태조사와 지원하기를 적극 요청합니다. 장관님,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신매매 실태조사는 인권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판정도 하고 있고……

○지성호 위원 진흥원장님, 함께 들으셨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보라 예.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기관은 아직 들어온 수요가……

○지성호 위원 지금 제가 30초 시간이 있는데 제 시간이 끝나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안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구출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면요,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 감금되어 가지고 매를 맞아 가지고요 실명이 된 탈북자도 제가 구출했고요. 중국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팔려 와서 매를 맞아 가지고 귀로 듣지 못하는 탈북민도 구출했고요. 심지어는 한 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에 있는 한 가족이 탈북 여성을 사 가지고 시아버지, 두 아들이 함께 공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21세기 우리 민족 여성들이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민단체에서 탈북자들 구출하는 일을 했어요.

눈물이 없으면 볼 수 없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표현 못 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 피해를 어디 가서 호소도 못 하는 그 트라우마는 얼마나 깊은지, 자살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울증 와서 문 닫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통이 탈북민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같은 여성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 북한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가지고 중국에 식량 구하러 넘어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가지고 내몽골 팔려 가 가지고 가족들의 품에도 못 돌아가고 그렇게 애를 낳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줬어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일을 했어요. 너무 슬퍼요. 해결해 주세요.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함께 마음을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 국장님에 따르면

현재 인신매매 대상에 외국인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북민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다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호 위원 탈북민을 따로 빼야 돼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해 주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국가가, 여성가족부가 해야 돼요.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아까 이어서 PPT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마치 간척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 세계챔버리 2015년 당시 사진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나온 건데요. 노란색이 야영지고 자주색이 과점활동장입니다.

15년, 17년인데요, 여기 좌측이 야영장 부지입니다. 일본 세계챔버리 17년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무숲이 없고 텅 비어 있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아까 말씀했던 과점활동장입니다. 구글 어스 파노라마 사진에 그대로 나옵니다. 숨길 수도 없는 사진이고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찍었던 현장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구글 어스에 나옵니다. 그때 일본 세계챔버리 야영장 부지입니다. 넓은 간척지 부지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여기도 폭염대책을 별도로 세운 거지요. 나무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타할 게 아니고, 폭염대책이라든가 생수 공급이나 이런 대책을 통해서 해결해 갔던 겁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게 23년 현재 그 부지입니다. 노란색이 야영장 부지 전체고요, 우측이 과점활동장 부지입니다. 이것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척지가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프레임은 씌우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지요. 폭염, 화장실 위생 문제, 해충 문제 이런 것은 사실 간척지와 무관한 대책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 때,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 평창올림픽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상당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차관을 평창에 상주를 시킵니다. 그 황태덕장 한파가 몰리는 곳에 주 공연장이 있는데 그곳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차관을 상주시켜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가 사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총장의 허위보고라고 보기에 1년 6개월이 너무 길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챔버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면서 나중에 백서로 남길 때 정말 전 정부 탓, 남 탓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인지는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답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 또 출향도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결국 새만금 예산으로까지 갔어요. 예산 5100억 삭감까지 갔기 때문에 분노가 최절정에 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양의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원영 위원 양의원영입니다.

앞서 제가 청소년 관련한 예산 삭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입니다.

차관님, 이 건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지요? 왜 전액 삭감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간 고용부가 하고 있는……

○양의원영 위원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으로 넘긴다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리고 중복성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양의원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노동자 지원 관련한 것은 대부분 다 노무사 업무와 연관됩니다. 그렇지요?

노무사들이 관련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은 산업

재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사실은 성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근로권익 보호사업은 굉장히 작은 간단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 안 하나 정도를 대면해서 직접 지도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내용도 잘 모르고 임금을 체불당하기도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이런 것을 그 사업장에 계신 분들하고 삼자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건 노무사를 대동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의 성인 노동자에 대처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여가부가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삼자대면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앞서 정책관님이 지자체로 넘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매칭 예산이 사라지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사라지는 거지요. 매칭이 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전담 인력이 전국에 3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두 달 뒤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다 무직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비용을 내서 이런 분들 고용되도록 지자체 매칭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고용부는 고용청을 통해서, 근로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양의원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청소년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까, 작성했어도 일방적으로 갑질하는 어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요. 여가부가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국정감사장이라서 이 정도로 끝내지만 예산 질의를 할 때는 이것을 원상 복구시켜서 가져오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허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숙정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2023년 9월에 언론에 보도된 센터 상담직원의 파견 및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졸속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이 총 34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상담직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나 관심도 높은 직종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어느 부처보다 관심 가져야 할 여가부장관이 무려 12년 동안 계약직의 불안한 고용 현실과 동일 노동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가부 소속 상담 직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전혀 고민 안 했다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지금 그 34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20명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지금 찾아 놓고……

○허숙정 위원 상세 내용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다음에 명퇴하신 분도 계시고.

○허숙정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업 포기를 하셨는데요.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알아서 잘할 거라 자신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도 지금……

○허숙정 위원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공문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여가부 공문이 내려갑니다. 공문에 보면 3항, 사업 종료와 해당 기관 및 종사자에 사업 종료 통보가 우선입니다. 4항, ‘상담 인력을 기타 사업 인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고용 유지 협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계약직 3명 계약 종료이며 자체 예산 확보 없다’. 경기도 답변입니다, ‘계약직 4명 계약 종료

이며 자체 예산 확보 없다’. 경찰청 답변입니다, ‘인력 선발 임금에 대해 관여치 않으며 인력 미배치 시 업무 과정으로 학교폭력 문제 대응에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경기도 A 지자체 답변입니다, ‘해당 지자체 청소년의 상담을 의뢰받아 처리하지만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종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여가부에 상담시스템이 있습니다. 1388이 있고요.

○허숙정 위원 각 관련 기관은 사업을 종료하고 직원 계약을 종료하며 자체 예산 확보 계획이 따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서, 그다음 지자체 청소년안전망과 함께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숙정 위원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여가부의 강력한 의사 표시로 보이고요. 이러한 결과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닙니다.

○허숙정 위원 본 위원은 117 상담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여가부가 관련 부처 및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할 것과 117 상담센터 예산 지원의 존속 및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29일 고용노동부 질의를 통해서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에 인력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질의했고요,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확인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11월 중에 판단 예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노동부의 판단 반드시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곧 사업의 내실과 효율을 높여 주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처우개선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청소년 자살과 정부대책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

를 보면 800명대에서 코로나가 극심할 때는 900명대로 1000명 가까이에 이르다가 작년에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9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10.4명입니다. OECD 35개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평균 1.6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청소년 자살,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 논의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PPT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추진과제에 포함된 부처는 여가부가 유일합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아무래도 저희가 청소년 주무부처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이 돼서 만든 과제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장관님 지금 답변처럼 여가부입니다.

자살 상담 관련해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다 있습니다. 복지센터 있고 동반자하고요.

○김미애 위원 3개인데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301억 7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청소년상담 1388은 365일 24시간 운영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그런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1388도.

○김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올 초에 17세 청소년이 학교를 자퇴하고 한강 다리 위에서 모든 걸 포기하기 전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전화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햇볕도 쬐라’ 이런 답변을 들었다 해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뒤 맥락이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현장에도 가 보고 상담센터에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상담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살을 예방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갖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을 돌이키고 또 희망을 가질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센터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상담센터는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차관님도 직전에 부산에 계셨는데, 저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처우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제대로 점검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2024년에 저희가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에 전담 인력 105명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거점 센터에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하고 임상심리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광역에는 임상심리사를 배치해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상의랑 같이 신기업가 정신 해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지금 5대 해서 제가 2호 버스까지 다녀왔습니다, 전남하고 대전. 전남 같은 경우에는 2600여 명의 청소년을 이미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위기청소년, 특히 마음건강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다음 자살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정책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볼 생각입니다.

○김미애 위원 덧붙여서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이 처우 개선이 되어서 사명감 플러스 생계가 가능하도록, 보람도 느끼도록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바랍니다. 지금 차관님도 계시지만 한결같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사이버상담원 같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일 4시간 근무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급여가 낮은 단점도 있습니다.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권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영 위원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합의 공약이었습니다. 장관님 취임사에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효율화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 나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출국금지랑 운전면허 정지보다 명단 공개가 매우 신청률이 낮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단 공개가 덜 되는 이유는 여가부에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나머지 2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여러 가지 열악한 현실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소송을 독립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원을 독립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처우와 인원 확대가 실제로 그 소송을 빠르게 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명단 공개까지도 이것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업무 이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공개제도는 여가부로 바로 하는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육비이행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영 위원 차관님, 21대 국회에서 꼭 실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신현영 위원 동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너무 충격적이지요. 이게 여전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관께서도 지난 4월에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하면서 온라인상의 인권침해성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에 모럴 해저드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이것 관련된 시행규칙을 보면 사진·영상들을 활용해서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이런 표시·광고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18·19·20년도에 경찰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나 봤더니 실제로 2020년 것은 68건이 반송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여가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계정 문제되면 채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리고요. 또 영상이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불법광고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아직 열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차관님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저희가 지금 방통위랑 같이해서 삭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되는 게 미등록 업체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등록 업체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에 통보해서 불법광고를 삭제조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경찰청에 이관하면 그냥 신경 끝이 아니라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후속조치까지 잘 되는지 여가부가 경찰청이랑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예, 책임감 갖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정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민주당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간단히 여쭙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미 새만금 챔버리 부지가 갯벌이 아니고 대지 수준으로 조성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에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지로 변경을 해서 갯벌 매꾼다고 해서 농지기금 1846억 갖다 쓰셨는데 그 돈은 뭐에다 쓰셨습니까? 갯벌 매꾼다고 쓰셨는데 그 1846억은 쓸 일이 없었겠는데요, 대지로 돼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반쪽 대회로 끝난 새만금 챔버리 조직위원회가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생겨난 불용액이 전체 사업비의 1.7%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었는데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당초 새만금 현장에서 체험학습이나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계약한 사업이 94건으로 총 205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만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12일 동안 새만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편성된 현장 사업들이었는데 실제로 8월 8일에 대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태풍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을 조직위가 3억 4248만 원으로 집계했던 말이지요. 이게 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다 정산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어떤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계약을 했을 때 중간에 계약이 변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은, 사무국에서 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되더라도 다 정산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언론에서 보기에 예산의 98.3%를 다 썼다, 불용액이 1.7%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특히 뭐가 있냐면 일정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학습활동이 있었거든요. 고사포 숲 밧줄놀이 및 해양활동, 익산 왕궁리 유적지 체험 이런 게 30여 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데다가 이 중에서 고사포 숲 밧줄놀이 및 해양활동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8월 13일 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전라북도 지역업체인 레인보우포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본금 1억 원에다가 2021년에 직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23억 5900만 원을 수주했구요. 그것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를 지역위원회의 직능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비용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많다.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이나 계약 방식에서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당연히 그게 감사원 감사의 대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대표가 여성이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적절하게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8건을 수주해 갔는데 그중에 7개가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도 제한경쟁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이권 카르텔이 작동한 게 없는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감사원 감사의 당연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제가 그 포괄 범위까지 일일이 알기는 어렵지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5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분 계시는 거지요?

○김미애 위원 저도 할게요.

○위원장 권인숙 그러면 다섯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부터 질의하시지요.

○용혜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예산의 원칙 운운하시는데 피해자 지원 후퇴가 원칙일 수 없고요. 그리고 성인권교육 예산 불과 5억인데 여가부가 내년에 2030 호감도 올리는 예산으로 4억 6500만 원 잡아 났어요. 저는 이게 원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요청드리고요.

황윤정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오전에 요청드린 김현숙 장관과 김행 후보자에 대한 통화 기록입니다. 제가 통화 내용도 제출해 달라 그리고 카카오톡 등의 SNS 메신저 내용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 안 하셨습니다. 왜 빼고 제출하셨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통화내역만 있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런 것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예.

○용혜인 위원 안 하셨다고, 오늘 증인 선서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예.

○용혜인 위원 김현숙 장관이 여가위에 무단 불출석했던 8월 25일 기조실장이 열 번, 대변인이 세 번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열 차례 통화하셨고,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장관님께서 여야 협의가 되면 회의를 참석하고자 경내 대기하고 계시면서 회의가 개최될 수 있겠느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10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김행 장관후보자가 청문회 무단 이탈하고 한 번 2분

44초 통화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통화 왜 하셨어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그때 당시에 차수 변경 이후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후보자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상황인데 상황 변화가 있는지……

○용혜인 위원 그 상황은 저도 알고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상황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습시다.

○용혜인 위원 장관후보자와 장관에게 국회 회의장 출석하셔야 된다, 복귀하셔야 된다, 그게 맞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제가 후보자에게요?

○용혜인 위원 예.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시다.

○용혜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예.

○용혜인 위원 기조실장께서는 본인이 여당의 입장에 봉사하는 당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저는 공직자입니다.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공무원인 기조실장 본인은 자리에 남아서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과 장관후보자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용혜인 위원 행정적 지원이요.

심지어 김행 장관후보자 행방 관련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경위를 답변하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본인은 여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관후보자에게 복귀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저는 기조실장님이 공직자로서 국회와 헌법 질서를 참 우습게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8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기조실장님도 국민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입장을 정리하실 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앞으로는 여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 참석 똑바로 하겠다. 재발방지 약속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오늘 약속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당시 청문회장에 제가 들어가서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본인의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요, 적절했냐고 여쭙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황윤정** 추가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윤석열 정부 공직사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를 오늘 기조실장이 잘 보여 줬다고 생각하고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가부,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호 위원**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탈북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본가집이 없습니다, 북한에 있으니까. 애가 있는 경우에 또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왔을 경우에 시댁은 중국이고 본가집은 북한이고 엄마도 아이도 함께 정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북한에서부터 넘어온 아이들도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가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미래를 향한 첫걸음,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레인보우스쿨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성호 위원** 예, 미래를 향한 첫걸음 사업은 사회에 진출한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을 보니 자기이해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성교육, 인권교육, 건강교육,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가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이주배경청소년 사업에 묶어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여가부, 유관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해서 산다고 이주배경청소년들로 분류하면 탈북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또 지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지독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미수복 지역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과는 다릅니다.

장관님, 내년부터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이 민간 위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탈북 사업이요?

○**지성호 위원** 예,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이 민간 위탁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한 40초밖에 없으니까 질문 다 하고 마무리해서 답변 조금 길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이주배경청소년재단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지성호 위원** 여가부 유관기관을 통해 진행한

북한이탈청소년 지도사업도 실적이 저조한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효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처럼 따로 탈북청소년 지원 사업을 만들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성호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탈북여성이나 탈북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다만 탈북여성이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일부하고도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도 들어가 있지만 국내로 이주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라든가 중도입국청소년들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여러 가지 스쿨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재단도 있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은지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오늘 말씀 많이 주신 탈북청소년이나 아니면 탈북여성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저희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제가 딱 즉각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통일부가 사실은 굉장히 또, 하나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하고 논의를 해서 중복은 없도록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성호 위원 통일부는 중앙부처에서, 사실은 지구력이라든가 현실성에 있어 가지고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성들의 문제니까 여성가족부라든가, 청소년 문제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통일부장관님과 함께 상의하셔도 비슷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아까처럼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북여성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여가부의 업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청소년 주

무부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이 다른 이주배경청소년과 좀 다르게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잼버리 위치나 준비 관련해서 해외출장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요, 대표적인 왜곡 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잼버리하고 불안군을 선택하면 25건의 출장보고서가 뜹니다. 25건 중에 4건은 중복으로 뜨고요, 15건은 잼버리 유치활동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부처 장관들이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듯이 그때 공직자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3건은 뭐냐 하면 손흥민 선수를 봤다는 건인데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마다 보내는 배낭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자체 심사를 통해서 공무 국외연수를 보내는 배낭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자비 50%, 군비 50%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낭여행 연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왕이면, 외국에 가니까 외국의 공신력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프로그램 중에 만나면 잼버리 홍보를 해 달라 해서 그걸 추가한 겁니다. 이걸 출장보고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장보고서 전체를 보실 수 있고 자료 요청하시면 볼 수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루즈를 탔다는 것도 불안군은 서해안 관광수도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궁항을 마리나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루즈 입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군 전 공직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크루즈 기항지 이쪽을 다녀온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잼버리도, 그쪽 관계자가 한국에서 잼버리 하니까 파이팅 하고 홍보했던 겁니다. 이것도 출장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건도 타 직무 관련 답사입니다. 그래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련된 해외 선진지 사례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부산시청 공직자들도 공무 국외 여기 나가면 부산세계엑스포 홍보

하라고 아마 부산시장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로 검색하면 부산도 그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고요.

전라북도가 총 60건입니다. 49건이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융프라우 말씀하시는데, 영국과 스위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위스는 스위스 쾰더스텍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계스카우트센터가 있습니다. 촌 동네지요, 스위스의. 그 촌 동네에 세계스카우트센터라고 해 가지고 1년에 5만~8만 명의 스카우트들이 와서 야영 체험활동을 합니다. 관광도시로 바뀐 동네입니다. 글로벌 리더센터가 세계스카우트센터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바뀌 가려고 글로벌 리더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건 있겠지만 정말 양심 없는 공직자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외출장 공무 연수계획서를 꼼꼼히 다 읽어 보시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안군청 공직자들, 전라북도 공직자들을 정말 세계잼버리를 핑계 삼아서 세금을 도둑질하는 공무원으로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아까 정경희 간사님께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끝나고 하세요.

○이원택 위원 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 권인숙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장관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흥원 정규직 평균 연봉이 작년 기준으로 4500이고 무기계약직은 3000만 원입니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처우는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다. 월 20만 원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세후 3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채용공고 냈지만 1명도 응하지 않습니다. 21년 변호사 평균 연봉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은 정말 중요하지요. 대부분이 양육비 소송구조 업무를 합니다. 저도 술하게 만나 본 분들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직원들 처우는 열악한데 경영

은 정말 가관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에서 작년 12월에 남산스퀘어 2개 층으로 이전했는데 연간 얼마 드느냐? 임차료가 14억 5000만 원, 관리비 10억 400만 원, 25억입니다. 조달청에 있을 때는 7억 8000이었던기 때문에 한 17억 정도를 더 지불합니다. 물론 그때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발표가 되는 게 있었지만 여전히 진행된 게 없고 기재부, 통일연구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 일부도, 서고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원장이 쓰는 건지 누가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G80 전기차 계약을 했는데 82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월 렌트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직원들 처우는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중요한 업무라는 변호사 처우는 최악인데 이런 경영을 하는 게 옳은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지, 이런 돈 좀 아껴서 처우개선에 쓰는 게 더 우선적인 게 아닌지,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건강가정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랑 같이 있어서 경영과 관련된 인원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우리 가족국장과 함께 노력을 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게 구조조정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이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진흥원이 이상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들 급여가 좀 낮아서 저희가 변호사들을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김미애 위원 좀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낮습니다. 국선변호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도 평균 연봉이 1억 1500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낮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키면서 그 안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연결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박근혜정부 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잘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결국 나중에 이게 더 진행이 된다면 선지급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외에 다른 부분에서,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전체적인 경영이…… 작년에 제가 검토를 한번, 저희가 다 스크리닝을 한 이후에 이사한 다음에 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만약에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운영비 관련 된 경비 같은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다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다음은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여가위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질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진행 현황을 들여다봤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법들이 다 국회에 계류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일인당 20만 원에서 1만 원 올라서 21만 원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예, 맞습니다.

○신현영 위원 요즘에 밥값이 1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야박한 증액 아니냐, 그리고 생색내기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대신 중위소득 60에서 63%로 범위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 예, 실질적인……

저 차관님한테 답변 구할 건데,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이런 전문성 강화하겠다는 통합 전환했어요. 그런데 사전 소통 없는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피해자 지원에서

도 분절이 발생하고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런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업무 이관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화되는 범죄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감수성과 노련함이 필요해서 기민한 상담소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장 소통 없이 옮기는 것보다는, 이런 표면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공중화장실 영유아 시설에 대한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차관님 혹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워 보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예, 둘, 남매 키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가서 아기 안고서 사용을 하려 그러면 어린이용 대소변기·세면대·기저귀교환대 이런 것들 되게 절실하거든요, 아기 엄마들한테는요.

그래서 설치율을 봤더니만 어린이용 대소변기 28%, 세면대는 25%에 불과하고요, 대전·전남·광주·제주 설치율 10%도 안 됐습니다. 기저귀교환대도 전국적으로 3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저출생도 극복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여가부가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랑 협력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답변 주시고요. 장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코멘트 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공중화장실 부분은 행안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혹시 장관님도, 아까 말씀 주시려고……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저희는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한 5개 정도의 정책을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돌봄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저고위나 이런 데서 논의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에 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답변 좀, 정경희 위원님께서…… 딱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권인숙** 조금 예외적인 일인데요.

○**이원택 위원**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위원장 권인숙** 그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2분만 드려서 정리하도록 하지요.

○**이원택 위원** 새만금은 방조제로 막으면서 내부가 육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지화가 빨리 된 건 20년도 됐고 15년도 됐고 그렇습니다. 육지화가 됐는데 새만금 마스터플랜을 보시면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국제화용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농생명용지는 홍수 대비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립고를 1.5m 이상으로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육지화됐다 하더라도 매립고를 지반 강화와 홍수 대비 1.5m로 하게 돼 있고요, 관광레저용지는 3m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관광레저용지로 3m 매립하려 그랬는데 기재부가,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3m로 매립하면. 그래서 농생명용지로 절차에 따라 전환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의 세부계획에 보면 각 용지별로 30년 빈도, 관광레저용지는 50년 빈도로 홍수 대비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정과 계획들이 다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절차에 따라서 용도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인숙** 이상으로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수감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대회와 관련하여 시설준비 부족, 초기대응 문제, 부지선정 문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재평가, 여가부 지자체 조직위 등의 총체적인 책임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회복 및 보완책 마련 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처우개선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필요, 권익증진 정책과 관련하여 통합상담소 확충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스토킹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 여가부 내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북한이탈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적극 지원 필요, 그 밖에 아이돌봄제도의 내실화 방안,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재발방지 필요 등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해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한 국정감사에 관한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현장 시찰과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센터의 운영 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수감기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

위원 보좌관, 속기사, 경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7인)

권 인 숙	김 미 애	김 한 규	문 정 복
신 현 영	양 경 숙	양이원영	용 혜 인
이 원 택	장 경 태	정 경 희	조 은 희
지 성 호	최 승 재	최 연 숙	한 준 호
허 숙 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수 옥
입 법 심 의 관	이 은 정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 관	김 현 숙
차 관	이 기 순
기획조정실장	황 윤 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박 난 숙
여성정책국장	김 종 미
권익증진국장	최 성 지
대 변 인	조 민 경
정책기획관	김 가 로
청소년정책관	김 권 영
가족정책관	김 숙 자
운영지원과장	양 철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장 명 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 연 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 효 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직무대행	전 주 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 보 라